

소학생

어린이날 특집 ★ 67호★



아협 발행 157 5월치



안국의 어린이

①프랑스 ②이탈리아 ③러시아 ④아메리카 ⑤노르웨이 ⑥스웨덴 ⑦그리스 ⑧포르투갈 ⑨영국 ⑩러시아
 ⑪독일 ⑫일본 ⑬캐나다 ⑭아프리카 ⑮인도 ⑯중국 ⑰일본 ⑱우아 (아프리카) ⑲아
 메리카 ⑳모리셔 ㉑대륙 ㉒제국 ㉓비엔나 (스페인 나비아와 핀란드 북쪽지방) ㉔아이슬란드
 ㉕아프리카 ㉖미국 (아프리카) ㉗니그르 (아프리카) ㉘아프리카 ㉙미국 (아메리카)
 ㉚미국 ㉛일본 ㉜러시아 (아프리카) ㉝아프리카 (독일 남부)

소학생

4282년 5월 1일 발행

67 호 5 월차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달의 메모☆

- 5월 1일...메에테에 (勞動祭)
- 5월 2일...이탈리아에서 낳은 세계적인 화가 레오나르도·다·빈치 1519년 세상을 떠남 (66세)
- 5월 5일...어린이날, 단오 (端午)
- 5월 6일...입하 (立夏)
- 5월 8일...측우기 (測雨器...世宗 24년 서기 1442년)를 만들어 측우의 제(制)를 상정(詳定)함
- 5월 20일...1506년 코롬브스제상을 떠남
- 5월 23일...이충무공이 거북선으로 일본 해군을 곤양(昆陽) 남쪽 노량(露梁)에서 못지르다(宣祖 25년, 서기 1592)



그림 · 조 병 덕

차 례

☆어린이날 특집☆

- 어린이날의 유래와 뜻 (4)
- 세계나쁜 뜻을 품자...소 철(5)
- 어린이와 돈...지 용(6)
- 어머니의 어머니...조풍연(8)
- 일요일...오 불.....인 호(15)
- 일요일...저 녀.....한 인현(23)
- 일요일...제자리 걸음.....김 인수(10)
- 일요일...국기 소녀.....(20)
- 일요일...하얀 족배.....정 인택(12)
- 일요일...피노키오.....작 은물(31)
- 일요일...옛 얘기.....청 사(24)

- ☆선화는 어떻게 발명되었나?...박 동식(9)
- ☆백두산 이야기.....홍 종인(22)
- ☆강강강 강강시대.....최 명환(44)
- ☆동요 & 맛 보기.....박 영중(47)
- ☆우리 나라 공부.....조 용만(28)
-애독자 아홉 상타기 문제.....(39)
-3월차 애독자 아홉 상타기 발표.....(43)
- 만화영화 · 피노키오.....(35)
- 과학 질문.....(46)
- 동요를 읽고 나서.....박 영중(52)
- 뒤집장학명.....(19) 착각이뎀무엇?.....(51)
- 새소식.....(42) 재미있는공직실.....(50)
- 회보 · 한국의 어린이.....(2)
- 만화 · 토끼 외계로부터.....김 외환(55)
- 만화 · 과학 공부.....(18)
- 종인구 조사이야기.....(43)
- 비오물로 만들어진 그림들.....(8)
- 소학생 작품.....(52) 꼬마피카.....(46)
- 팔팔박사.....(50) 최명환.....(51)
- 소학생구락부.....(54) 꼬마장식.....(70)
- 만들고나서.....(34)

☆우리 학교 작품☆
수원 성호 학교치 (40)

☆그림 그리신 분☆
정 현웅 · 김 외환 · 한 종래
임 동은 · 조 병덕 · 최 수섭
황장 · 김 기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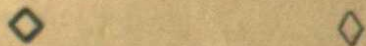


★ 영원한 어린이의 등무 ★
교 소파·방 정환 선생

어린이날 노래

(어린이날 전국 준비 위원회 제정)

날러라 새들이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이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고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자라면 새나라 일군
손잡고 나가자 조선의 별아
오월은 푸르고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 어린이 날의 유래와 뜻 ☆

이 나라 소년운동이 짝름과 때를 같이 하여, 서기 1922년 봄, 경성 천도교 소년회 (京城天道教少年會) 에서는, 그 때 일본 동경에 있던, 소파·방 정환 선생님과 몇몇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만든 색동회와 더불어, 그밖의 서울에 있던 다른 소년단체와 의논하여, 해마다 5월 초하루를 “어린이날”로 삼자는 것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날은, 온나라 어린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시각에 축하 행진도 하고, 등화대회도 있어, 어른은 어린이를 축복하고, 어린이는 자기자신을, 또는 온 나라의 자기와 같은 어린이동무들을 서로 축복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날이라고 어른들이 어린이를 귀여워 안하고, 또 동무들끼리도 서로 서로를 축복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날만은 특별히, 어른이나 어린이나 할것 없이, 다시한번 마음속 깊이 느끼고 앞날의 희망을 더욱 굳게 갖자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해 5월부터 “어린이날”은 실행되었으나, 일반 여러 사람에게 대한 선전이 완전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때때 “어린이날”이란 무엇인가? 이날의 확실한 뜻을 몰라, 그해엔 그다지 큰 열매는 맺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는 동안에 놀라운만큼 발전하여, 1925년 “어린이날”에는, 조선 전국에서 약30여만 명의 어린이가, 기념식과 행렬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의 (意義)로써 만들어진 “어린이날”은, 한 사람으로써의 대접을 못받고, 마치 부모들의 인형이나 또는 어린이라고 업수입받는 어린이들이, 이 명절날은, 큰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노래하는 들도 없는 명절입니다. 몇 만년이 가도 변하지않고 계속할 이날, 여러 어린이 동무들 앞길에 영원한 행복이 있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 씩씩하고 참된 소년여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

언제나 큰 뜻을 품자

||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

소현

5월 5일은 여러 분이 기다리는 “어린이날”입니다. 이날을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명절이라고 하여, 어린이 여러 분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베풀어, 여러 분들이 뜻있게 즐겁게 하루를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 나라만이 “어린이날”이 있나? 여러 분들은 그 까닭을 아십니까?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나라의 가정생활은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집안에서 향연이 제일 좋고 연세가 제일 많은 어른을 바라며 모셔서, 모든 일이 이 어른을 위하고 이 어른의 명령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볼지라도 모두 어른이 먹을 몫과 잔 것들이지, 어린이들이 먹을 생김고 단 음식은 별로 없습니다. 음식뿐이겠습니까. 옷을 보더라도 가슴과 종아리를 칭칭 동여매놓은 허리띠와 대님 때문에, 한창 무뎠던 자랄 어린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의복은 모두 발육된 어른들이 입을 의복입니다. 뛰고 달리는 것이 온종일 하는 일인 어린이들에게, 그 점잖은 저고리, 두루마기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나라에서는 어른만 제일로 알았지, 어린이들은 도무지 수애도 받지 않았읍니다. 어리다고 록하면 따리기가 일수이고, 무엇하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없었읍

니다.

그러던 것이, 서양에서 남들이 어린이들을 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차차 우리 나라 어른들도 생각을 고쳐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세상에 어린이 같이 귀하고 소중한 애릇할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들이야말로 자라서 집안을 흥하게 만들고 사회를 흥하게 만들고, 나라를 흥하게 만들 사람이 아닙니까? 어린이들이 튼튼하고 씩씩하고, 명랑하고, 정직하고, 영리하고, 비뚤성있게 잘 자라야, 나라가 잘 되고 흥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아무렇게나 함부로 기르는 나라치고 잘 된 나라는 없읍니다.

이리하여 어른들에게 어린이가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어린이를 위해주는 습관을 기르자는 것이 “어린이날”을 만든 목적입니다. 이와 동시에 어린이들에게도 자기네들이, 집안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우쳐주는 날입니다. 이 글을 쓰는 책이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니만큼, 여기서는 어린이 여러 분에게 “어린이날”에 명심할 몇 가지 점을 물어 말씀하겠습니다.

◇ ◇

여러 분들은 우리 나라의 어린이들입니다. 우리 나라는 작년엔 탄생되어 앞으로 크게 발전할 나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가 크게 발전하려면, 여

★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

어린이와 돈

지 용

프랑스에 유명한 성녀 "작은•테레사"라는 분이 계시었다. 게 일차 대전 전에 빠리 카르멜 수녀원에서 스물 네살로 이 세상 나이를 마친 수녀이시었다. 열 다섯살에 수녀원에 들어 가셨지만, 본래 빠리에서 상당한 보석상을 하시던 아버님의 딸이시었다.

성녀•작은 테레사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착하고 총명하고 경건하였던지, 아버님 어머님의 대단한 사랑을 받으시었다. 어려서부터 모든 아이에 지나치게 총명하여서, 여간해야 남에게 속지 않으셨다 한다. 네살밖에 한 번은 그의 아버님이 하도 총명한 어린 딸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너 땅에다 머리를 굽히고 입술을 흙에 붙치고 일어 서면, 아버지가 돈을 많이 주마." 하시었다. 작은•테레사는 성이나서 단연코 아버지의 시험하지는 말씀을 거부하셨다.

물론 아버님도 딸이 구태어 흙에다 입술을 붙쳐가며 돈을 얻기를 바란 것이 아니고, 어린 딸의 기상이 어떠한가를 보려고 한 것이었으나, 어린 딸의 늙늙한 기상을 보고, 매우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신 것이다. 어려서부터 이러한 높고 깨끗한 기상을 갖춘 작은•테레사는, 스물 네살에 과연 거룩한 성녀로 이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 그 아버님의 하신 일을 따님과 같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없이 한다. 만일 그때, 네살된 어린 따님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셨다면 어찌 하였을까 생각해 볼만한 일일까 한다. 아버님은 크게 실망하시고 분해하시고, 어린 딸을 다스려 워하셨을 것이다. 돈이 좋은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모두 어른들이 하여놓은 것이다. 세상에 모든 어린이들도 돈을 좋아하게 될 것은, 어른의 잘못지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놓고 왜 어린 딸을 시험하여 본 것일까?

이 세상에는 성녀 작은•테레사 같은 분은 매우 수가 적고, 속시 몰라 돈을 바라고 흙에다 입술을 대일 네살짜리 어린이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라서 성인 성녀가 못될 어린이들은, 모두 못을 것인가를 또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인 성녀는 몇 분에 그치는 것이요, 보통 어린이들도 자라서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분 어린이들이 잘 자라서, 여러 분의 손으로 이 나라를 훌륭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크게 발전하는 것은, 오로지 여러 분 어린이들이 잘 자라는데 있습니다. 잘 자라려면, 우선 첫째로 여러 분들은 어린이답게 씩씩하여야 합니다. 말이 조금 쌀쌀하다고 "어이 주어, 어이 주어." 하면서 두꺼운 옷을 달라고 조르는 어린

이는 씩씩한 어린이가 아닙니다. 밤에 나가서 뛰고 놀아서 몸이 후끈후끈하게 만드는 것이 씩씩한 어린이입니다. 어른이 무엇일 나무랐다고 비죽비죽 우는 어린이는 씩씩한 어린이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공손히 결하고 다시 그런 것을 안할 결심을 하는 것이 씩씩한 어린이입니다. 동무들과 장난을 할 때에도, 정정당당하

게 승부를 겨누어야지, 속임수를 쓴다든지 때를 쓴다든지 하는 것은 씩씩한 어린이가 아닙니다. 언제이고 어린이답게, 무엇에 움츠란다든지 겁낸다든지, 야비(野卑)한 행동을 한다든지,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씩씩한 어린이입니다.

여러 분 보십시오. 우리 나라 산들이 푸른 하늘에 비죽비죽, 하늘을 찌를 듯이 서있지 않습니다

★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대조케 어른들이 돈을 표준하여 만물은 사회에서, 어린이들도 보기에 가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요, 심하면 남의 돈을 훔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면 돈 그 물건이 나쁘고 더러운 것은 아니다. 권기와 수도와 일용살과 등속이 반드시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듯이, 돈도 필요한 것에 들림없는 것이다. 돈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요,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요, 적당히 필요한 것임으로, 어린이가 철이 나려고 할 때부터 돈에 대한 지혜와 옳은 도리를 배우게 할 것이다.

돈을 무조건 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가르치거나, 제일 좋은 것으로 알게 하는 교육에서 비참한 어른들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 서양 문화국의 좋은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어린 아를 팔이 귀엽다고해서 돈을 거저 주는 법이 없다고 한다. 마당을 쓸때우든지 방을 치우고 반드시 그 보수로 돈을 준다고 한다. 일을 하여 돈을 받고, 돈으로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알리우라는 것이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서양 문화국의 좋다는 가정에서 귀여운 아들 딸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돈을 준다는 것이, 거저 돈을 주어 까먹게 하는 것보다는 좋을까도 싶으나, 그렇게 한다면 돈을 반드시 보아야만 일을 하게 되고, 돈 없이는 집안일도 못시킬 염려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자란 문화국의 아이들 이란, 극단 가는 개인주의자로 할을 염려가 있지 않을까? 이러나 저러나 돈이라면 어려서부터 약아빠져 꺾정이가 될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돈과 어린이의 관계를, 적어도 소학생 시절까지는 아주 가깝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책일까 한다.

교과서, 학용품 값, 월사금, 입학금, 후원회비따위 문제로, 일체 어린이의 머리와 가슴을 조이게 하고 괴롭게 할지 않을만한 어른의 사회가 먼저 서져야 하겠다.

아이들이 돈을 자랑하고 돈 때문에 눈이 퉁퉁 부어야 하는 꼴

을 지금 우리 나라에서 본다. 소학생이 해가 지기 전부터 밤이 늦도록 “내일 아침 신문 삼시요, 삼시요.” 하고 비참한 소리를 지르며 달음질을 쳐야 하는 것이, 어찌 “이마에 땀을 흘려 일하고 먹어라” 하는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이 되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이마에 땀을 흘려 일하고 먹어라”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어떻게 나쁜 풍속이 남아 있는지, 정월 초하룻날 세뱃돈이라는 것이 있다. 어린이를 세배를 받고 즉시 돈을 준다. 으레히 받을 작정으로 세배를 한다. 아아! 이것이 흠에 입술을 붙치고 돈을 받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일까?

이렇게 자란 어린이들이 자라서, 돈이라면 무슨 짓이라든지 하지 않을지 어떻게 보증하겠는가? 돈은 단 한푼이라도 절을 하고 비굴한 짓을 하여 얻을 것이 절대로 아니다. 제 손발로 일을 아니하고, 남의 덕분에 살기 좋아하는 어른이나 어린이 일수록 돈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다. 성작만 해도 실금한 일이다.

까, 우리 나라 강들이 푸르고 맑게 산골짜기와 옥지를 흘러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하나 구르리고 움추리는 것 없이 산들은 얼마나 썩썩하게 솟아있고, 강들은 얼마나 썩썩하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런 산과 강의 정기(精氣)를 타고난 어린이, 어찌서 썩썩하지 못할 작질이 있습니까.

썩썩한 어린이들—그것은

새로 태어나 앞으로 크게 발전할 우리 나라의 표상(表象)입니다. 썩썩한 어린이들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나라의 앞길에 대해서 무한한 희망을 갖습니다. 무한한 즐거움을 갖습니다. 썩썩한 새싹들, 썩썩한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큰 보배입니다. 여러 분! 무엇보다 먼저 썩썩한 어린이가 되십시오. 썩썩한 어린이야말로 우리 나라

의 썩썩한 기상(氣象)입니다.

다음으로 큰 뜻을 품으십시오. 아무렇게나 그저 성적이 좋지 못해도 고만, 운동을 할 줄 몰라도 고만, 작문을 잘 못치어도 고만, 이렇게 지내서는 안됩니다. 무엇이든 한 가지 일에 뛰어나게 잘하리라 하고, 열심으로 정성껏 해야 합니다. 그럼 재주가 있으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되리라, 운동을 잘 하면 유명한

* 썩썩하고 침된 소년(少年)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

운동선수가 되리라, 작문을 잘
 지으면 글감 있는 사람이 되리
 라, 과학자가 되리라, 웅변가가
 되리라 하여, 자기의 목적을 세
 워가지고, 그 길로 즐기게 달
 락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저
 평범하게 아무렇게나 공부하다
 가, 무엇이든 걸리는대로 되리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좋지못
 한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흐
 락명명하고 되는데로 되어라 하
 는 생각은, 큰일날 생각입니다.
 되는데로 되어라가 아니라, 되
 도록 여러 분의 손으로 만들어
 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큰 과학
 자가 필요합니다. 화학자, 물리
 학자, 의학자, 수학자, 박물학
 자가 필요합니다. 큰 정치가,
 큰 사업가, 큰 학자 그 어느 것
 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
 니다. 큰 나라, 잘사는 나라,
 돈 많고 힘세인 나라가 되려면,
 무엇에고 어느 점에고, 남의 나
 라 사람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여
 러 분들은 이런 잘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세계의
 제일가는 화학자가 되리라” “나
 는 훌륭한 실업가가 되리라”
 “나는 큰 철학자가 되리라” 하
 고, 큰 뜻을 품으십시오. 그리
 고 이 길을 향하여 열심히 성
 심성의로 분투 노력하십시오.
 큰 뜻을 품은 어린이의 눈 같이
 광채가 찬란한 것은 없습니다.
 희망에 찬 눈 같이 아름다운 것
 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눈이
 야말로 우리 나라의 빛입니다.

맹자의 어머니

조 풍 연

우리는 어렸을 때, 어른들에
 게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
 었습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중국에
맹자라는 성현이 계시었습니다.

이분은 공자와 함께 훌륭한 어
 른으로 동양에서 높이 받들어
 온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맹자가 어렸을
 때, 무덤이 많은, 지금으로 치
 면 공동묘지 근방에 살았더니,
 어린 맹자와 그 동무들은 모두
 상여 매는 장난이며, 산초에
 엮드리어 우는 장난을 하는 것
 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맹자의
 어머니께서는, 이거 아이들 교
 육에 재미 없다 하시고 곧 이
 사를 갔습니다.

이번에 이사 간 데는 정거리
 였습니다. 그랬더니 맹자는 불
 견을 사고 파는 장사놀이를 하
 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맹자의 어머니께서는 이거 큰
 일났다 하시고 다시 이사를 갔
 습니다.

이번에는 글방(지금의 학교)
 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맹자는 글 공부를 열심히 하
 여 나중에 그러듯 훌륭한 어른
 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어렸을 적
 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할
 아버지께들도 다 들어온 터입
 니다. “맹모 삼전”(맹자 어머니
 의 세번 이사)은 교육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분 생각은 어떻
 습니까? 무덤이 있는 곳에서
 사람이 묻히거나 곡을 하는 것
 이 나쁜 일일까요? 그리고 장
 사하는 것이 찬란 일일까요?
 직업에 귀하고 찬란 것이 없는

민주주의 시대에, 다만 글 공부
 만이 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온 인민이 맹자의 어머니
 와 같이 좋은 데만 골라서 피
 해 다닌다면, 나라 안에는 강하
 할 사람도 없을 것이며, 공동
 묘지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통 글 공부만 하는 사
 람 뿐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나이 어렸을 때
 에는, 생각하는 것이 몹시 단순
 하고,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기 쉬워서, 못된 것을 보
 면 자연 못된 버릇이 생기기
 쉽습니다. 물론 맹자가 어렸을
 시절과 같이 모지나 정거리가
 나쁘고 찬란 것이 아니 되었지
 만, 그 대신 새로 좋지 못한 것
 이 많이 늘었습니다.

가령 요즈음 좋져 못한 그
 림책 같은 배서, 총을 쓰야 사
 람을 해치는 도둑이라든가, 학
 생답지 못한 말투를 배울 기회
 가 부쩍 늘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께서 다 맹자의 어머니처
 럼 가든하게 이사를 다닐 수 없
 는 형편이니, 더욱 여러 분은 위
 대로운 처지에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 분은, 맹자보
 다도 더 거세고 거침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진 비
 바람을 곳곳히 물리쳐서만 나
 무는 튼튼히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 분은 이사를 다니며 피해
 살지 않는 대신에, 그런 잡스런
 교임과 싸우며 이를 물리침으
 로써 더욱 굳센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리써 보면 여러
 분은 맹자보다도 오히려 더
 통쾌할 기회를 가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부디
 당부하는 터입니다.

*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부

① 발명 이야기 ①

전화는 어떻게 발명되었나?



박 동 식

세계로 전화 발명가라면 누구
나 그라함·벨을 생각할 것입
니다만, 사실은 휘이릴·라이스가
벨보다 먼저 이것을 개척한 것
입니다. 라이스는 독일 사람으로,
후랑크푸르트에서 그리 멀지 않
은 세문하우젠에서, 빵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책을 읽는 것과
기차 탄지는 일을 즐긴 까닭에,
가난한 아버지를 졸라서, 겨우
우리에트리히스돌프에 있는 상급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였습니
다. 후에 그는 이곳으로 이사를
하여 전화기를 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오랜 후의
일이요, 그 학교를 졸업하곤 바
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하던 빵 가게를 물려받아
정사를 시작했으나, 그의 성질에
맞지않음인지, 그는 다른 정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사보
다 공부하기를 더 좋아하는 그
는, 몇해 하던 정사를 그만 접어
최후로 고향을 떠나, 학생시절에
참고 우리에트리히스돌프로 가서
이른그때의 학교의 선생이 되

었습니다.
“아아! 이제야 마음을 놓겠
군. 암만해도 이것이 내 성질
에 맞나봐.”

이렇게 말하고, 그는 밤을 낮
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26세 때 일입니다. 그가
이같이 열심으로 전기를 공부하
게된 동기로 말하면, 소리(音)에
의한 공기의 진동어, 전기의 힘
을 빌려 먼 곳까지 전해질 수
있을 것이리라 생각할 까닭입니
다. 대장장이에게서 받은 철봉
(鐵棒), 그것을 감는 전선(電
線), 손으로 만든 헨 상자, 얇
은 금속판(金屬板) 조각, 이러
한 것들이 책상 위에 널부러져,
그것이 2년 후에 기묘(奇妙)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불행하게 끝을 마친 선각자 라이스

어 기묘한 물건이 만들어지너
까, 곧 그는 동네 아이들을 수화
기(受話器) 언저리에 모아놓고,
자기는 옆방으로 가 송화기(送話
器) 앞에서 서투른 바이올린
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
더니 이제 웬 일입니까! 수
화기에선 우르릉 우르릉 소
리가 나서 무엇인지 잘 모로
겠으나, 아무튼 이상한 음악
이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자
아 이것이 동네의 큰 이야기
거리가 되어, 모두들 칭찬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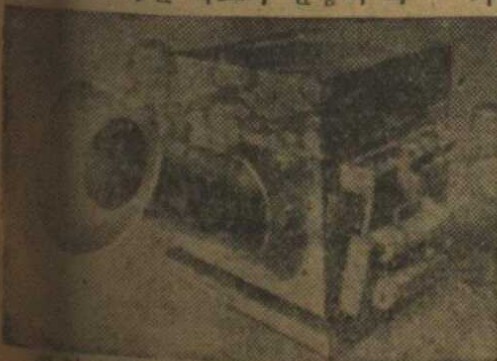
자하고
야단들입
니다. 이
렇게 되
고 보니
당자(當
者)의 기
쁨은 어
떠하였겠
습니까.



휘이릴·라이스

그는 곧 후랑크푸르트로 가 여러
학자들 앞에서 실지로 해보였습니
다. 학자들은, “거참 소리가 들리
는 재밌는 기계군!” 이렇게 생
각했으나, 무슨 말인지 통 알아볼
수도 없고 영문을 모르는 까닭
에, 이상한 전기 장난감이라고 밖
에는 생각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기계의 구조(構
造)와 기능(機能)을 알리는 사
람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실망하였습니다. 실망한 나머지,
그는 2년이나 걸려서 만든 기계
를 헐값으로 팔아버리고 힘없이
더벅더벅 쓸쓸한 집으로 돌아갔
다고 합니다.

그는 이 일이 있은 후, 가난과
병으로, 그 이상 전화기의 연구
를 계속할 기운도 없이, 그다저
도 열성으로 바라고 연구한 전화
기의 성공을 보지 못한 채, 기어
이 1874년, 겨우 40세의 젊은 나
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
와 같이 전화기 발명에 누구보다
도 먼저 손을 댄 그는, 성공을 눈



라이스가 발명한 전화기

앞에 두고 외롭고 쓸쓸히 이 세상을 등진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라이스와는 전혀 물리는 전화기가, 라이스가 죽은지 2년 후, 그보다 열 세살이나 젊은 그라함·벨에 의하여 발명된 것입니다. 만일 운명이 라이스에게, 훌륭한 환경과 조건 또는 건강한 육체를 갖게 하였더라면, 전화기는 라이스의 손으로 완성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이스 이외의 전기학자 가운데는, 소리가 전선(電線)에 흐르는 전류(電流)의 변화로써, 큰 소리를 저절로 먼 곳까지 전하여질 수 있을 것이리라고 상상하고 있던 사람은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끝마치려면, 전기 지식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까.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의 발음(發音)이나 귀의 구조(構造) 또는 귀가 얼마나 빠르고 예민하게 운동을 하느냐에 관계가 있는 까닭입니다. 앞에서 말한 라이스의 수화기란 것은, 얇은 금속판이 음파(音波)에 의해서 떨리, 그 운동이 전류(電流)가 흐르는 회로(回路)를 선달아 단속(斷續)한 것이지만, 이것으로는 완전하게 음파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나하면, 연속(連續)한 음파의 변화는, 어떠한 연속한 전류의 변화로 변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도 알 수 없는 까닭입니다.

맹아학교 선생인 벨

그런데 그라함·벨은 맹아학교 선생이었던 관계로, 사람의 발음이나 귀의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음파에 의한

진동판(振動板)의 진동을, 연속해 있는 전류의 변화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깨닫고, 최초로 실제로 쓰이게 되는 전화기를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1847년 영국 스콧트랜드에서 낳았으나, 20세가 넘었을 때 부모와 함께 멀리 본국을 떠나 캐나다로 온 것입니다. 벨은 이곳에서 귀먹어리, 또는 병어리들을 교육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성적이 좋아서, 얼마 안되어 보스톤에서까지 불리어, 그곳에서 병아학교 선생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발명을 꿈꾸고, 또 꼭 실현해 보려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이 때였습니다.

28세 때, 무슨 불일이 있어

아메리카의 수도 와싱톤에 갔던 길에, 유명한 전기학자 조세프·헨리 박사를 찾아가, 자기 생각을 자세히 말하고 나서,

“그러나 선생님! 이제에는 그것을 발명할만큼 전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기운없이 벨은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잠자코 듣고 있던 박사는, 78세의 노인답지 않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아니, 자네는 지금 내 발명을 완성하느냐 못하느냐의 무결 때 걸을 앞에 놓고 있지 않은가! 자네는 아직 젊으니까, 필요하다면 공부를 하게. 아니 공부할 꼭 해야 하느니, 암 그렇지, 해야하고말고!”

동요

제자리 걸음

김 인 수

하얗 들 셋 넷
제자리 걸음
하늘에는 흰구름이
흘러갑니다.
봄바람은 살랑살랑
땀을 스치고
운동장을 한바퀴
빙그르 돌아
하얗 들 셋 넷
제자리 걸음





그라함·벨

항상 자기가 존경하고 있던 학자의 입에서, 발은 꾸지람과 발은 정성으로 격려해 주는 말을 듣고, 그는 다시 꼭 성공하리라 결심한 후, 보스턴시 환 구석, 보잘 것 없는 하숙 삼층방을 빌려 가지고, 밤을 낮으로 침식을 잃다 썼이,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혼자서는 좀처럼 연구를 계속할 수 없었던 관계로, 토머스·와스튼이란 청년을 데려다 조수로 삼고 같이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아아! 들립니다!
성공입니다!

1875년 6월 어느날 오후 일입니다. 벨은 연구실에, 그리고 와스튼은 옆방에 있었는데, 벨이 전선(電線) 끝에다 만들어 놓은 진동판(振動板) 앞에 가서 몸을 웅크리고 있으려니까, 들연 초미 하나와 거스다만 소리가 진동판에서 울려오지 않겠음니까! 그는 무엇에 필리운 것 모양 필적 뛰어 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와...와스튼군! 다시 한번 같

은 것을 해보게. 어서 다시 한번...”

숨을 가쁘게 쉬며 와스튼에게 이른 다음, 다시 부리나케 연구실로 돌아가, 원판(圓板)에다 귀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얼마 안있어 또다시 아까와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읍니다.

이것이야말로 벨이 오랫동안 침식을 잃고 연구한, 그러고 지나 깨나 기다리던 일입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는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참지 못하여 방안을 이리저리 뛰어 다녔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을 저쪽에 전한다는 것은, 아직도 개량에 개량을 거듭하지 않으면 안되었읍니다. 또 벨이 만든 그 기계로는, 수화기(受話器)에서 우르릉 우르릉 잡음이 들리고, 말소리는 조금도 안들립니다. 이것을 개량하고 다시 연구하기 위하여, 그는 조수 와스튼과 함께 10개월동안, 정말 글자 그대로 자지도 쉬지도 않는 노력이 계속되었읍니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1876년 3월 보스턴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조수 와스튼이 전선 한 끝으로 수화기를 귀에다 대고 있으려니까,

“와스튼군 이리 오게, 내 기다리고 있을테니.”

이제껏 들을 수 없었던 맑은 소리가 전선을 통하여 들려오니,

이 일을 어찌겠음니까! 와스튼은 정신없이 벨이 있는 상층으로 뛰어 갔읍니다.

“선생님! 매우 성공입니다! 들립니다! 들려요!”

이렇게 의지가 바르게 들이침 서로 손을 붙잡고 기쁨에 넘쳐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너무 길게 전기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반대로 음성(音聲)에 대한 지식이 없었더라도, 이 같은 전화기는 발명되지 않았을 것이다.”

벨은 나중에 이렇게 어느 등무에게 말했다 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전화기를 공개(公開)하였을 때, 여러 사람들은 멀리서 말하는 소리가 왜 들리는지 몰라서, 어떤 기계경수는 정적을 하며,

“이것은 반드시 전선(電線) 속에 조그만 구멍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아무리 자세히



벨이 설명을 해도 믿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하얀 쪽배

정 인 택
그림·정 현 응 (4)

혼자 걷는 길

(1)

아버지가 가셨을만한 곳, 아버지 소식은 알만한 사람들을 경애는 두루 찾아 수소문해 보았으나, 한 사람도 아버지의 제신 곳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태가 풀락 전 후, 경애는 기적벽전해서 최의사 병원에도 들르지 못하고 골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시지나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니, 놀랐을 때 모양으로 가슴이 찡니다.

그러나, 짝된 죄망이었을니다. 텅 빈 쓸쓸한 방 안에 어둠이 서려 있을 뿐, 여전히 거리와 마차가지로 찬 바람이 뽀뽀 들고 있습니다.

경애는 불결 생각도 못하고 빗바닥에 걸썩 주저앉은채, 긴 환숨을 토했습니다.

한참만에 겨우 정신을 차려, 성냥을 집어 들고 마약 등잔에 불을 켜며 할 때,

"경애야, 경애야... 캄캄한데,

...떨지 지나.....아직 안들어 왔나.....경애야."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애는 얼른 등잔에다 불을 땡겨, 그것을 들고 마루로 나서며, "누구세요?" 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등잔 불에 비친 경애의 얼굴은, 어린 제집아이답지 않게 창백했고, 수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하룻동안의 피로가 더한층 경애의 표정을 험상궂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경애냐?"

"있었구나?"

"왜 불투 안켜구....."

앞선 노인이 이렇게 경애를 책망하려다 말고, 문득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 끝을 흐리며



을 다물었습니다.

.....원, 이런 딱하구 불쌍한 태가 있나, 어찌 혼자 집을 지키자니.....불결 생각이나 된 날타구.....

불 안켜걸 책망해도 좋을, 그런 경애의 처지가 못된다는 것을 얼른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이나.....지어 먹었니?"
우두루 마루 끝에가 걸터 앉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마루로 올라온 한 여인이가, 경애의 등을 어루만지며 물었습니다.

"네....."

경애는 일걸에 우선 이렇게 대답해 놓고 나서, 자기를 어찌

세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 보았
습니다.

이름 모르는 사람도 섞였스
나, 모두 낯익은 얼굴들이었습
니다. 경애와 경애 아버지 모양
으로, 마차를 부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이었습
니다.

“글쎄, 오늘서야 이 사람에게
서 듣고 알았구나. 이런 기막
힐 때가 어디 있던 말이냐.”

저녁 먹었느냐고 물은 여인네
는……아니, 경남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치맛자락
으로 눈물을 씻으며,

“소식 들구 모두들 어찌나 안
됐는지……장사 때 와 보지두
못했다구…… 이렇게들 너를
위로해 주려 오셨단다.”

하면서, 두통한 봉투를 경애
의 손에 쥐어 주며,

“혼자 오죽 외롭겠니. 이젠
여러 분들이 조금씩 모아서
대게 주시는 돈이란다. 사양
받구 받아라. 요렇게 북스럽
게 생긴게 무슨 까닭에……조
실부모를 천담.”

경남이 어머니는 연해 치맛자
락을 눈에다 갖다 대입니다.

(2)

여러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
경애는 경남이 어머니와 방 아
랫쪽에가 마주 앉았습니다.

“그대 혼자 살 수두 없겠구…
…장사 어떡할 작정이란 말이
냐?”

한참 서로 말이 없다가, 먼저
경남이 어머니가 근심스러운 듯
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

경애는 여전히 대답을 못합니
다.

곰보할아버지도, 최의사도,
그리고 기영이네 아주머니도,
모두 똑 같은 걱정을 해주었습
니다. 그러나 경애는 그 때도
대답을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대답을 못합니다.

아버지 소식을 알 때까지는
혼자서 집을 지키자……그것만
은 결심했으나, 그러나, 내일이
나 모래 아버지가 돌아오는지
않는 이상, 경애는 우선 혼자서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했습니
다. 그러나, 거기까지 아직 경
애는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
다.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까두 얘기했지만……”

경남이 어머니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의 아버지 오실 때까지는
네가 이 집을 떠날 수 없지
않니. 여태 소식이 없으신 것
은, 오늘 내일두 집에 들오실
것 같지두 않구……그러자니
무슨 수두 너혼자 지내겠니?”

그렇습니다. 나이 어린 소녀
가, 어지러운 세상을 무슨 수로
혼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
각하니 기마킬 일입니다. 경애
는 한참 생각에 잠겼더니, 번쩍
고개를 쳐들고,

“아주머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외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논이다만……”

…너두 알지 않니, 감성이…

…주근깨 많은 키만 커다란

★지금까지의 대감이야기부

집이 가난해서 학교도 그만두고, 아버
지가 부리는 역마차를 따라다니는 경애.
저녁에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 온 직
마가 으레히 아버지는 열을 감수했다. 그
래서 오늘도 마차를 끌며 집으로 혼자
돌아오는 경애의 가슴은 아팠다. 더구나
어머니는 벌써 오래 전부터 병으로 누
어 제신터가 아닌가. 그날밤 아버지는 그
에 돌아오시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병은
점점 더해갈 뿐이었다. 돈이 없어 주사
한대 약 한립 변변히 써보지 못한채 이
튕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
다. 곰보할아버지, 최의사를 비롯하여 이
웃사람들의 친절한 동정에 그날로 정사
까지 치렀지만, 아버지는 대해 어디를 가
셨단 말인가? 경애의 가슴은 슬픔의
트름에 가득 찼다.

그러나 경애는 타고난 기성이 섹섹했
던 탓도 있지만, 친절한 곰보할아버지와
최의사와, 그리고 동무들의 우정으로 혼
자서 용감히 아버지를 찾고 살아 나아갈
것을 결심한다.

오늘날도 동네 아주머니와 동무들이 즐
거 찾아가, 밤이 깊어서야 다들 돌아가
고 쓸쓸한 방안에는 경애 혼자 남겨
되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잠시도 안
란해지지는 머리, 섹섹하게 마음을 먹게
했으나, 역시 외롭고 쓸쓸하고 무어라 할
수 없이 가슴이 답답하다. 그 이런
날, 아버지를 찾으려 나섰다. 우선 미처
이 모이는 선유연으로 가기로 하고, 도
중 최의사를 찾았다. 그래서 최의사 말
대로 먼저 경찰서에 수포권을 내기로 하
였다. 경애는 병원에서 나오자 아버지 소
식을 꼭 알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
지고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기뻐
운 걸음거리로 선유연 근처로 갔다. 그
러나 아버지와 친하신 감성이 아버지도
다른 마차부리는 아저씨들도, 경애를 보
자 어찌 아버지는 묘사 안나오시느냐
고 외물을 뽐.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아
버지 소식도 등 모르고 있는 것이었어
모든 것이 슬망! 모든 것이 어둠! 저
의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자는 기
영이를 부르시고, 입없이 걸어가는 경애의
가련한 뒷모습!

너석말이다……”

“네……”

“감성이 그너석이 이번엔 저
의 집 심령이 피어서, 학교엔



다니게 했다는구나. 갑성이 형
버서쳐 오세 돈벌이를 끈질 리
는 모양이더라.....그래서, 갑성
의 아버지 말이.....혼자서는 마
차를 부릴 수두 없구 하니, 마
차를 잘 댔다구 갑성이 대신 댔더
래 마차에 타달래는구나.....전
혀림 하던 일이구, 또 잘 아는
자이래야 맘놓구 돈두 마갈 수
있구.....그래서, 네 의향을 알
아보구 대답하러구.....”

.....
경애는 고개를 푹 수구리고
생각에 잠긴 모양입니다.
“네 생각엔.....그렇게 했으면
좋은 것 같다하는.....남의 신

체 지지않구 지낼 수 있는 것
만두, 얼마나 다행한 일이나
.....밖에 나가서 일해야 너의
아버지 소직두 일어 들을 수
있을께 아니냐?”
“.....”

“이런 자리는 구월래야 구월
수 없는 자리거든. 그렇지 않
니? 갑성이네 집안까지 잘
알겠다. 갑성이 아버지두 네
쳐지는 잘 아시겠다.....한집
안 갈지 뭐냐?”
“네.”

경애는 이윽고 고개를 틀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말씀대 무히겠

에요.”
“그래라, 내가 너한테 대로운
말이야 하겠나.....”
경남의 어머니는 무거운 짐이
나 벗은 듯, 입가에 웃음을 머
웠습니다.
경애의 얼굴에도 맑은 빛이
떠들었습니다.

(3)

하루 종일 마차에 사달린다는
것은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었
습니다.

몸이나 마음에 익숙한 일이기
는 하지만, 손님이 많으면 맘을
쭈룩 앓아볼 틈이라곤 없었고,
얇기커녕은 거의 반나절은 흔들
리는 마차 뒤에 매달려 있어야
했고, 그러면서도 요금을 받고
거슬러 주고 해야 했고, 때로는
밤 늦게까지 그런 심한 노동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마차를 끌 때
와 달타, 아무래도 갑성이 아버
지는 남인만큼, 마음 편하지 않
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경애는 이를 아물고
참았습니다. 참고 부지런히 일
했습니다.

그렇게 일해야 다른 것 생각
할 여유가 안생겨 좋았습니다.
외로운 것, 슬픈 것, 그런 것
다아 잊어버리고, 밤 늦게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
면, 집이 텅 비었던, 캄캄 하건
아무 생각없이 그대로 자릿속에
쓰러져 코를 팔 수가 있었습니
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하루 같
이 집에 돌아올적 마다,

.....혹씨 아버지가.....와 제
시지나 않을까. 그렇다면, 얼마
나 좋을까.

역시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서, 문고리를 잡
고는 잠간씩 숨을 죽이고 방안
동정을 엿듣는 경애였습니다.

그런지도 벌써 닷새째.

엿그제, 때아닌 비가 종일로
룩 부질부질 쏟아지더니, 날씨
가 바짝 추워져서, 하늘도 땅도
광광 얼어 붙은듯 했습니다.

전차전에서 갑성이 아버지와
떨어진 경애는, 타박타박 비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맑게 개인 하늘엔 별만 종종
있으나, 이따금씩 뒤흔 쏟아지
는 북풍은 살을 에일듯 합니다.

“어이, 추워...”

경애는 부지중 입 밖에 내어
중얼거리고 몸을 바르르 떨었습
니다.

문득 고개를 쳐드니까, 거기
가 바로 최의사 병원 문앞이었
습니다.

불이 화안하게 켜 있고 사람
의 그림자가 커터엔 위에서 어
른거렸습니다.

경찰서 문전에서 떨어진 후
인사 한번 못간 경애는 얼
른 생각해 내이고 부지중 그리
로 발을 들이키어 창문에까지
가서,

“선생님, 선생님!”

하고 가만히 불렀습니다.

유리창이 드르르 열리며 최의
사가 한손에 남포를 들고 고개
를 내밀며,

“누구야?”

하다가, 경애인줄 알자,

오 월

인 호

하늬바람 불어 오는
뿔등산에 오르면

나무 나무 가지 마다
파랑 잎이 눈 부셔

산도 나무도 하늘도
은 세상 모두다 파랗게 덮여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해 봐도
암만해도 가슴이 이상해져서

광충 광충 뛰여 볼까
소리 소리 산울림을 울려나 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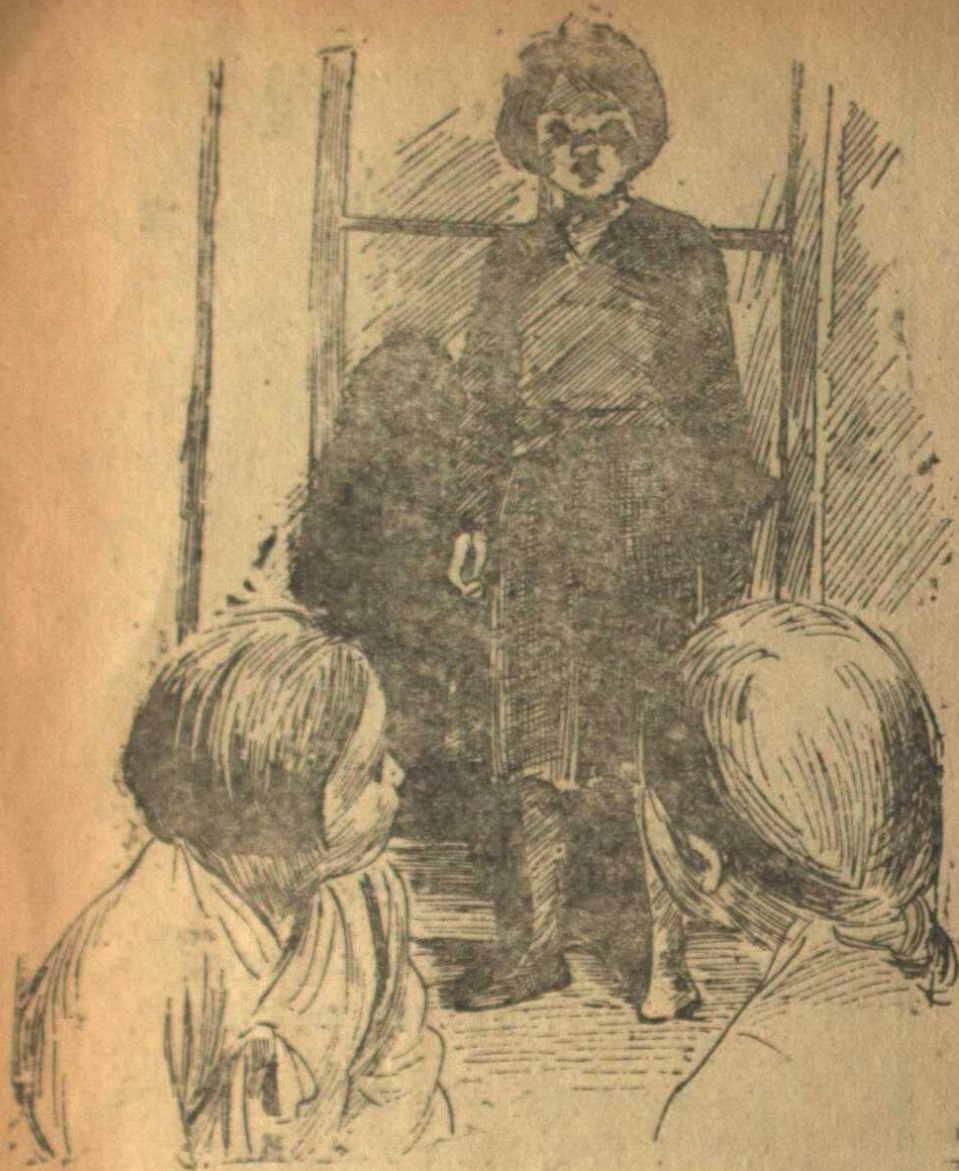
산에 서는 산새처럼 날아진다면
나무 한번 저렇게 날아 보면만

파랑 잎 파랑 잎 눈 부시는 파랑 잎
이상하게 자꾸만 좋아지는 맘

오월은 좋은 달 즐거운 시절
하늘 높이 종달이 귀여운 시절.



그림 · 임 동 은



“아이구 경애로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졸겠구나. 그 동안 어찌 그리 물 수 없었니. 좀 다 어서 들어와!”
 반색을 하며 반가워 합니다. 그러나 경애는 들어갈 생각은 안하고 창 앞으로 가까이 다가 서며,
 “아네요, 곧 가야겠어요. 지나다가 선생님 퇴인지 하부 오퍼해서, 급급히 걸레 들렀어요.”
 “그때 별 일 없었니?”
 “네, 딱히 뭐 없고 없으세요?”
 “응, 아무 일 없어. 아버지

소식 아직 두 못들었니?”
 “못들었어요.”
경애는 남포 불에 눈이 무진 듯 잠깐 고개를 돌이키더니,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들어와서 몸 좀 녹이구 가면 좋지.”
 “가서 방에 볼루 데야겠구... 이 답에 천천히 들르겠어요.”
 “오나, 그럼 잘 가거라.”
 “네.”
 언제든지 만나면 주위에서 따뜻한 바람이 이는 듯한 희의 사였습시다. 경애는 행걸 마음

이 가벼워져, 이번엔 진음을 말 리해서 집쪽을 향했습니다.
 고개를 넘어 집이 저만큼 바라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경애는 무엇을 보았는지 발을 딱 멈추고,
 “악!”
 소리를 지르며 다음 순간 쓴 살 같이 집쪽을 향하여 달음질 쳤습니다.
 뜻 밖에도 안방 들창으로 뒤편히 불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누가 왔을까?”

기처른 손들

(1)

경애는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지경입니다.
 “.....아버지가 오셨나?.....”
 꼭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남의 집에 들어와 아무도 없는데 불을 켜놓고 있었습니까.

놀랐을 때 모양으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추운 줄도, 숨이 가쁜 줄도 몰랐습니다.

경애는 단숨에 언덕을 뛰어 올라, 마당 한 가운데다 신발을 벗어 내동댕이 친 후, 피막 같이 방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아이구, 깜짝야!”

“경애로구나.”

“기집애가 왜 그모양이나, 조용 조용히 못하구.....기질 훨씬 헛네.”

정말 놀랐는지, 방안에 앉았던 세 기집애.....기영이, 기란이, 상숙이는 서로 얼얼

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가,
왔어오는 사람이 경애인 것을
보고 제각기 이렇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거 봐! 여태 이렇게 가
슴이 울렁울렁 허네.”

기영이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경애를
쳐다봅니다.

경애는 문 앞에가 딱 버리고
선채, 화경만한 눈으로 두리번
두리번 방 안을 살피더니,

“아버진……”

금방 슬픈 표정을 짓고 길게
한숨을 토하더니,

“……안오셨구나.”

흔갓말로 입안에서 가느다랗
게 중얼거리며 펄쩍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열어 젖힌채 바람에 펄럭어리
는 문.

이상한 긴장 가운데 말없이
앉아 있는 네 소녀.

이윽고 기영이가 바시시 일어
나 문을 닫고 나서, 경애 옆으
로 다가 앉으며,

“아버지 소식 들었니?”

조심 조심 물었습니다.

경애는 만들어 놓은 사
람 모양으로 눈 하나 짝
딱 안하고 앉은채, 고개만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등잔 불이 금방 꺼질듯 잠
박어듭니다. 방 안은 잠간 등
안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경애야, 이리 내려와!”

한참만에 상옥이가 아랫쪽
으로 내려가며 경애를 불렀습니
다. 그러면서 화로를 잡아다립
니다. 불이 번쩍지 피어 있습니

다.

“그래.”

경애는 새삼스럽게 추위를 느
꼈는지, 가늘게 몸을 떨며 상옥
이 옆으로 다가 왔습니다. 따끈
따끈한게 알맞게 불도 때어 놓
은 모양입니다.

열었던 손발이 녹고 나니까,
경애는 겨우 제정신이 나는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일시에 숨었던 피르가 쏟아져
나와,

“난……아버지가……오실줄만
알았지.”

또 한번 그렇게
중얼거리고
나서, 벽에

다 등을 기대었습니다.

세 동무는 그제서야 경애가
미친 사람 모양으로 후닥박 뛰
어들어온 이유를 깨닫고 잠간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래 대답할 줄을
몰라, 제각기 딱하다는 뜻이 가
만히 입맛을 다실 뿐입니다.

“찰……”

금환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
서며,

“……배 고플텐데……이리구,
앉았었구나……모두 왜 얼굴



이 따졌어.”
그러면서, 웃음에다 차려 놓
았던 밥상을 들고 오며,
“밥은…… 그 요 밑에 물어 왔
어.”
생글생글 웃으면서 경애 앞에
다 상을 내려 놓았습니다.

(2)

먹고 난 밥상을 경애가 들고
바가러니까, 기영이가 쫓겨 뛰
며,
“경애야, 글세 넌 가만히 있
어. 우리가 다아 해준대니깐
…설것이는 내 차례야.”
한사코 경애의 손에서 상을
빼앗아 들고 부엌으로 내려갑니
다.
“아아니, 이제 대체 쨌 일이
냐. 글세…”
경애는 무슨 영문인줄을 몰라
그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오늘버림 너는 주인이구…우
리들은말야 식모가 됐단다.
그런 즐만 알아.”
“그래, 참 우리들은 식모야.
호호호.”
웃는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떨거덕어리고 있던 기영이도 따
따 짹짹 웃으며,
“애 경애야, 넌 참 팔자두 좋
구나. 식모가 막 셋씩야. 호
호호.”
방안에서 상옥이가 또 까불어
합니다.
“그럼, 우연 인제버림 경애를
아찌라구 불러야 해. 알았니
?”
“참 그렇구나. …아찌, 따근
된 송늬를 더 떠다 드릴까요
?”
금란이가 텅따라 재갈대며 경
애를 놀립니다.
경애도 겨우 읽혔던 마음이
풀려 하는 수 없이 쫓 웃고 말
았습니다.

“대체 쨌 수선들이냐. 너희들
폐해니 이리구 나서, 나중에
날 꼴랑먹일테지…내가 속을
줄 알구. 작정이들 같으니라
구…”
그러니까, 상옥이가 다시 화
로를 밀어 경애 앞에다 갖다 놓
고,
“국으로 고맙다구나 그래라.
꼴랑 안먹일테니 걱정 말구…”
눈을 흘기며, 그러나 억지로
웃음을 참아가며 마주앉습니다.
금란이도 그리로 다가오며,
“아쨌 폐해니 역정만 내서!”
여전히 놀려대면서 화롯전 위
에서 손을 짹짹 비뺍니다.
상옥이가 부엌쪽을 향하고 외
쳤습니다.
“식모. 쨌 해. 설것일 다 했
으면 얼른 들어오지!”
“네, 네, 잘못했습니다. 그저
쨌쨌 배웠습니다.”
대답이 떨어지자 마자, 정말
설것이가 다 끝났는지, 앞치마
로 젖힌 손을 씻으며 기영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절화로 하나를 가운데 놓고
네 동무는 사이좋게 둘러앉았
습니다.
경애가 가만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셈이냐?”
“뉘가?”
기영이가 서책을 떠 때고
물습니다.
경애는 세 동무 얼굴을 번갈
아 한번씩 쳐다보며,
“난…방에 붙어 쫓 있었래…
아버지가 오신 즐만 알았지…
그랬더니…”
목소리가 또 떨립니다.
언제나 상냥한 상옥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연 그런건 꿈에두 생각안
리구 뇌가 추운데 와서 불매
구 밥터기 어려울테니…매일
저녁 우리가 대신 렉우치구 그

떨게 말이 돼서…뇌가 오기 전
에 해놓는다는게 그렇게 쨌만
다. 잘못했다. 응?”
“아냐, 누가 너희들더러 잘못
했됐니.”
“오늘버림 우리들은 방학이구
허니까, 뇌가 오기 전에 방에
볼두 매주구, 밥두 지어 주구
허자구 금란이가 먼점 말을 쫓
냈단다. 그래서 집에 가 여쨌
봤더니 그거 참 좋은 일이라
구 그렇게 허면 오죽이나 좋
겠느냐구…모두들 칭찬하
는 바람에, 우리들은 신이 나
서 이렇게 너 오기만 기다리
고 있었단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이에 경
애의 얼굴은 자꾸 수구러졌습니
다.
…고맙다.고맙다…
속으로 무수히 치사할 뿐, 그
러나 경애는 그 말을 입 밖에 내
지 못하고, 왈칵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참고 앉았습니
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동무들의
애정, 보드러운 솜으로 싸 주는
듯한 따듯한 동무들의 사랑 속
에서 경애는 거의 외로움조차
있을 지경입니다.
“기영아…”
경애가 고개를 번쩍 쳐들고 불
렸습니다.
“응”
“상옥아!”
“응”
“금란아”
“응”
경애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 동무도 일제히 손을 내밀
었습니다.
화로 위에서 굳게 쥐어진 네
동무의 손과 손.
모두 거치른 손들이었습니다.
등잔불이 또 꺼질듯 잠깐 짹
박어했습니다. —계속—

과학 공부



과학 상식

☆ 아십니까? ☆
우리 나라 강의 길이

이름	유역 면적	길이 Km	
압록강	평안북도	21,739	790
한강	경기도	26,279	514
낙동강	경상북도	23,860	525
대동강	평안남도	16,673	430
두만강	함경북도	10,513	521
금강	충청남도	9,886	401
임진강	경기도	8,118	254
청천강	평안남도	5,831	199
담진강	경상남도	4,897	212
예성강	강원도	4,048	174
재령강	황해도	3,571	129
대령강	평안북도	3,635	150
용흥강	함경남도	3,397	135
영산강	전라남도	2,798	116
남대천	함경남도	2,405	161
성천강	함경남도	2,338	99

☆ 별 목 ☆

(伐木...나무를 자르는 것)

= 뒤걸장 설명 =

별목이란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한 산업(産業)의 하나입니다. 깊은 산림(山林)에서 나뭇꾼들이 칼라면, 나무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강을 이용하여 뱃목으로 내려온 후 제재공장(製材工場)으로 운반되어, 제재기 그 용도(用途)에 따라 뿔뿔로 자르고 기계로 밀린을 만들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집을 짓는데 쓰는 것, 선목대를 만드는 것, 또는 가구(家具), 연료(燃料), 기타 일종의 심목(沈木) 등으로 쓰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으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옷과 섬유(纖維-옷감)도 이 나무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않고 별목을 할 때에는, 대부분 기계를 나 저울에 나무를 잘라, 눈 위를 생애로 높은 마차로, 트럭으로, 또는 다른 기계로 운반되어 한 곳에 모여진 후, 뿔뿔로 자르거나 기계로 밀린을 만들어, 제재공장(製材工場)에서, 여러 가지 모양이나 크기로 그 용도(用途)에 따라 나무를 자르고 파고 밀고 하여, 일반 산업에 쓰이도록 각 자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유명한 수림(樹林)이 우거진 북조선 압록강, 두만강상류지방과, 허랑산맥 고지대에서 많이 별목하여, 우리 나라 산업에 쓰고 있는데, 이러한 별목된 나무는,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뱃목으로 여러 날 흘러, 강 연안(沿岸) 뱃구(船口)에 닿아, 각 공장으로 운반되어, 뿔뿔로 잘려서 작은 뿔뿔나무로, 종이(과루프)만 할 나무는 제지(製紙) 공장으로 각기 뿔뿔(製紙) 되는 것입니다.

◇ 불 났을 때의 피난법 ◇

밤에 자다가, 뜻하지 않은 불이 일어나 사방이 온통 연기로 가득할 때는, 당황하거나 집을 집어 먹지 말고, 마음을 조용히 진정시키고, 뱃목으로 뱃쪽 다가보는 것 같이 하여 기어나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젖은 수건이나, 없으면 마른 손수건이라도 꿰찰 으러 그것을 코에나 대고, 만일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면, 용기를 내어 엎드려서 제때로 기어나오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애국 소녀 소설

국기소녀

글. 고연수 그림. 김익환



청, 학교, 병원들은 물론, 큼직한 사사집들도 모두 덕국 병정들이 차지하였습니다. 나라의 정치도 그들이 하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도 그들이 하라는대로 하였읍니다.

푸른 하늘에 쿵쿵 날리던 법국 국기조차 내려버리고, 서투른 덕국 국기가 꽂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라 화려한 장식기를 생각하고는, 하염없는 눈물만 지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루 이를 지나 가서 7월 14일, 법국 국경일(國慶日)이 돌아왔습니다. 예전부터 이 날은, 일년 중 제일 기분 날이라 하여, 법국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껏 놀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집집마다 국기를 달고 사람마다 새 옷을 가라 입고, 맛있는 음식을 하여 먹고, 길에는 풍선차가 다니고, 아침부터 밤까지 가지 가지의 매화총을 놓고, 사방에서 춤추고 노래부르고 가장행렬(假裝行列)을 하고, 참으로 법국

우리 나라에서는, 불란서는 법국(法蘭)이라 하고, 독일은 덕국(德)이라고 하였읍니다. 또 법국 국기는 삼색기(三色旗)라고 해서, 길이로 세 가지 색이 죽 죽 내려졌는데, 처음에는 빨강이, 가운데는 흰빛, 그 다음에는 푸른빛으로 되어있읍니다. 이 "국기소녀" 라는 짧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알아 두십시오.

옛날 보불전쟁(普佛戰爭) 이라고, 덕국 과 법국 두 나라가 전쟁을 하였을 때 일입니다. 오랫동안 두 나라가 싸우다가 그만 법국이 덕국에게 졌읍니다. 그래서 덕국 병정들은 무인지경 같이 법국 땅을 쳐들어 와서, 기어이 법국 서울 파리까지 점령을 하였읍니다.

아름다운 파리 시가, 무지한 법국 병정의 말굽아래 짓밟히어 버렸고, 파리의 모든 관

정신이 뒤집힐 듯이 굉장한 경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행히도 다른 나라 병대에게 점령을 당하고 있는 중이네 그 전과 같이 화려한 축하는 할 수 없으나, 간단한 축하식이나 하겠다고 덕군 대사령관(司令官)에게 교섭을 하여 보았습니다.

“정신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국경일 경축이 무엇이냐. 절대로 못한다.” 하는 덕군 사령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축하식도 그만 두고, 이 날 하루만 우리 나라 국기나 달고, 마음으로 기념이나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습니다.

“안된다! 국기를 달려면 덕군 국기를 달려야. 너의 나라 국기는 절대로 달지 못한다.” 하는 엄중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 이 말을 들은 법국 백성들의 가슴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이 좋은 국경일! 이 날 하루를 마음대로 뛰고 놀지는 못하나마, 자기나라 국기조차 달지 못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명령을 복종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무서운 형벌을 받을는지 모르겠음으로, 이를 악물고 참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떤 조그마한 집에 예쁜 법국 소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소녀는 같은 학교 한 반에 다니는 친한 동무들이었습니다.

“오늘이 좀 좋은 날이냐? 그런데 이렇게 쓸쓸히 보내져 는구나!”

“글세말이다. 작년에는 저 큰 걸이 모두 꽃밭이었지. 그리고 음악소리 노래소리에 귀가 아플 지경이었는데, 이렇게 조용하구나.”

“아무려니 우리 나라 국기까지 못달게 할게 무엇이람!”

세 소녀는 억울한 듯이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그 전에 화려하고 유쾌하던 그날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점점마다 문 앞에 높이 달은 삼색기!

“아! 국기나마 달아보았으면!”

이렇게 바라는 세 소녀의 가슴에 문득 반개같은 생각이 떠올라 왔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국기가 되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소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너는 모자와 저고리와 치마와 버선까지 모두 빨간 빛으로 입고 오너라. 그리고 또 너는 위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흰빛으로 차리고, 나는 전부 푸른 빛 옷을 입고 오겠다.”

한시간 뒤에 세 소녀는 약속한대로 하나는 빨간이, 하나는 흰옷, 하나는 푸른 옷을 입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 소녀는 큰걸로 나가서, 맨 앞에는 빨간옷 입은 소

녀가 서고, 다음에 흰옷, 그 다음에 푸른옷입은 소녀가 서서, 입으로는 우렁차게 법국 국가(國歌)를 부르며 한걸로 향하여 걸어 갔습니다.

유쾌한 국경일을 마음껏 축하도 못하고, 모두 근심스러운 얼굴로 집 속에만 들어앉았던 이 나라 백성들이, 문득 들리는 국가소리에 정신을 차리어 창문을 열고 내어다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에 펄펄 날리면서, 꿈에도 잊지 못하는 법국 국가, “보기 좋은 삼색기가 큰 한걸로 떠오는것입니다!”

적국 병정의 명령으로 달고 싶어도 달지 못하던 국기! 그 국기가 어린 세 소녀의 몸으로 변하여, 이 나라 모든 백성의 축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어나가?

“오! 국기 소녀...” 하고 여러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지한 덕군 병정들도, 여 소녀들의 아름다운 행동을 보고는 그것을 금지하거나 멸하지 못하였고, 이 세 소녀는 “국기소녀”라 하여 깊이 깊이 법국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 백두산 이야기 3 ★

3 길주에서 개마고대로

총 종 열

우리는 길주에서 거처를 바꾸어 라고 백산진(蕪山鎭)으로, 조선반도를 범갈다고도 비하하는데, 이제 우리는 범 목덜미가 되는 백두산 바로 남쪽 줄기의 개마고대를 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백두산 가는 행로(行路)를 알아 줄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백두산 등산이란 것도, 오늘 같이 철도가 있기 때문에, 몇 10명의 일당이 수월하게 성급 떠날 수도 있지 만, 그렇지 않고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서울서부터 원산까지는, 일본이 우리 나라를 빼앗고 난 뒤 곧 착수(着手)하여,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서기 1914년)에 철도가 완성되었지만, 원산에서부터 원경북로 회녕(會寧)까지의 함경선 철도는, 1914년부터 1923년까지, 실로 15개월 간이나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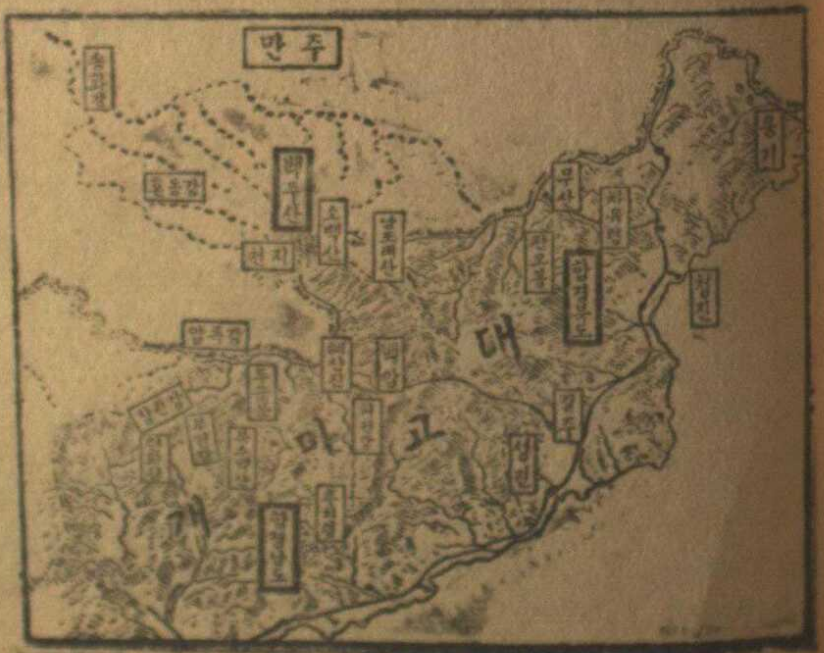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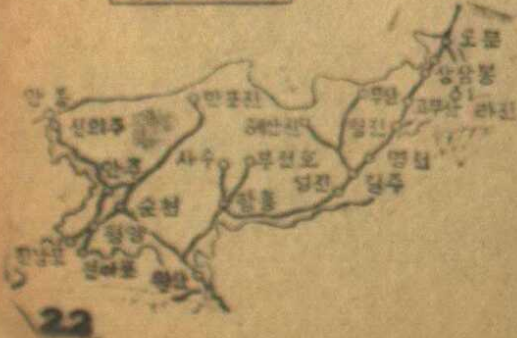
터서 완성을 본 때공사이었다. 이러한 대규모의 철도 공사는, 일본이 만주 대륙에 목표를 두고 침략의 손을 펼치는데, 조선반도를 통하여 서쪽으로는 경의선(京義線)으로 해서 남만주로 들어가고, 동쪽으로는 함경선(咸鏡線)으로 해서 동만주로 들어가는 통로를 만든 것과, 특히 함경남도의 깊은 산속에 잠겨있는 광산이며 목재 등, 무한(無限)한 자원(資源)을 끌어내려는 것이 목표이었다.

옛날이면 배고 걸날이 걸려서 성진(城津)을 들러서 웅기(雄基)로 통하는 것이 함북(咸北)에 들어가는

길이였다. 오늘 같이 철도가 부설되면서, 특히 길주에서 회산진으로 들어가는 철도는, 백두산 일대의 목재를 적어 내다가, 성진항구(港口)에서 일본으로 실어내리는 것이고, 청진에서 무산(茂山)으로 통하는 철도는, 목재보다도 무산의 철(鐵)을 끌어내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선쪽에서 백두산가는 길을 택한다 하면 이 두길 밖에 없다. 청진서 회녕으로 가는 도중에, 고두산(古茂山)에서 무산까지 거차로 가서, 거기서부터 걸어서 농사동(農事洞)을 거쳐, 내내 두만강(豆滿江) 물을 끼고 겨울 하나 건너 만주 땅을 바라보면서 가는 길이 있다. 다음이 이번 우리가 택한 백산진을 들러서 가는 길이다. 또 북쪽으로 만주 편에서 올라온다면, 안도현(安圖縣)과 경백현(長白縣)사이로 흐르는 송화강(松花江)원류(源流)를 따라오는 길에 있다. 어느 것이나 세날부터 많지 않은 탐험가들이 떠들

북조선 철도



이 온 백두산 봉우리이다.

그런데 길주에서 백두산까지라면 대단한 험산 준령이다. 여철로도 상당히 수고스럽게 건설했다는 것은, 한편 이 철도를 타고 개마고개를 넘어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함경선이 개통된 그 해부터 만 10년을 걸어서 1937년에야 완성한 것이다. 기차가 길주를 떠나서 처음엔 제법 달리는 듯 하나, 얼마만큼 산중으로 들어가서는, 더우치 더우치 아주 숨이 가쁘게 소경을 탄다. 가나가는 피눈아. 뒷길을 처기도 한 두번이 아니고, 또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산 중부를 휘돌기도 여러 차례에, 차츰 차츰 더듬어 올라가는 것이, 바로 백두산 이 철도의 중간 지점이요, 또 함경남북도의 경계선인 분수령(分水嶺) 개마고개의 등마루라고 할 백암(白岩)에 닿는 것이다. 백암의 표고(標高)가 1422미터, 기차도 기운이 백암 지경이거니와, 타고 온 사람도 함승 쉬어야 할만큼 숨이 가쁜 영나무이다. 과연 고지대의 풍경과 완전히 속세(俗世)의 진토(塵土)를 떠난 별세계의 느낌이 없지 않다. 벌써 서울 근방에서 보지 못하던 관북지방, 특히 백두산 지역의 고식풀이 눈에 띄우는 것도, 우리의 주의를 끌은 바 있지만, 그보다도 엄청나게 평범하고도 웅장한 산세(山勢)와 바람도 씩씩한 고지대 공기는, 험없이 맑고, 태양의 백광(白光)은 더욱 밝다. 정거장은 조그마한 단채집에, 역원들의 집이 두 세나 채, 그 옆에 붙어 있을 뿐, 늘어보아야 아무 것도 없는 산과

동요

저 녀

현 인 현

서쪽 하늘 맑게 맑게 노을졌어요,
언덕 길도 맑게 맑게 불들었어요,
소를 타고 돌아오는 어린 아이들,
풀피리도 마더마더 아름다워요.



그림 · 김 의 환

나무의 땅이다. 지대가 높고 바람이 세인 곳이기 때문에, 정거장 부근엔 큰 나무도 삼림도 보이지 않으나, 기차에 실어올린 목재는 몇아름 되는 어마어마한 동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과연 원시림(原始林)으로 파고 들어가는 심산(深山)에 들어온 느낌을 더욱 짙어 했다.

그런데 철도는 백암에서 다시 북으로 갈리어, 그야말로 무인지경으로, 산과 목재탄을 찾아든 백두산(白茂線) 철도의 기점이 되어 있다. 1932년에 착수하여 무산까지 통할 예정으로, 그 동안 공사를 한 것이, 약 삼분의 이 가량 들어가서, 연사(延社)라는 곳을 좀더 들어간 곳까지 개통하고, 그만 공사가 중단된 채로 해방이 된 것이다. 이 철도는 순

전히 삼림(森林)을 깎아 베기 위한, 소위 삼림철도이다.

백암에서 함성간나마 기차도 쉬고 사람도 쉬었다. 고성지대의 풍광에 혹하여 산중으로 함암 나물자더, 아주 신선하기가 늦가을 같기도 했다. 정거장 옆 샘물은 일음물이나 다름없이 손이 떨어지게 차가웠다. 그 때 일명 중에, 전에도 백두산 등산에 참가했던 친구가 멀리 북쪽을 가리키며,

“저기가 백두산에 다음 가는 갓모봉(冠帽峰)—2541미터) 그리고 서쪽으로 저기가 백두산 산인데, 외부가 비일 곳도 하지만……여기가 개마고개, 우리는 백두산 매지 위에 올라 설 셈이요.” 하고 지도를 들

로 설명을 하고 있었다. 멀리 은
근하게 피꾸리와 피꾸리사이로,
사뭇을 잃어 놓은 듯한 울타란이
안개 속에 얼게 보이는 것이 갖
모분이라고 가리켰다.

백두산의 대지 개마고대에 발
을 붙치고 서 있는 우리는, 웅대
한 백두산을 이루는 광대한 이
고원의, 특이한 편을 다시 생각
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앞서도 이야기할 바 있었지만,
백두산 화산이 터지면서 현무암
(玄武岩)이 여러 차례도 흐르고
도 흘러서 쌓인 용암대지(熔岩臺
地)란 것인데, 백두산으로부터
북으로는 만주의 흥개호(興凱湖)
부근 밀산(密山)에 까지 500키로에
미쳤고, 서쪽으로 평안북도 창성
(昌城) 대안관전(寬甸) 등과, 남
으로는 함경남북도에서 평안북도
에까지 미쳤는데, 그 면적이 실
로 4,000평방 킬로미터에 달
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용
암대지가 세계적으로 크기는 인
도의 맥칸 고원의 삼십만 평방키
로나, 북아메리카 서북부 지방
(와싱톤주와 오레곤주에 있는것)
의 것에는 비교가 안된다. 조선
의 개마고대도, 그 크기도 유명
한 것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
게 그 면적이 광대하다는 것은,
북방권의 백두산이 얼마나 높고
웠을 것이며, 또 이 북방로 인하
여 동방의 이 지대에 얼마나 큰
변화를 주었을 것이냐 하는 문제
가, 이에 따라서 생각되는 것이
기 때문이다.)

—계속—



☆머 리 말☆

여러 분은 유명한 "이슬 이야기"를 아
시지요? 이슬이라는 그리스야의 노래가
주어 모든 이야기들을 "이슬 이야기"라
고 합니다. 비록 노래기는 하지마는,
그 가운데는 세상의 나쁜 일을 빈정대
고 좋은 일을 일깨워 주는 좋은 교훈
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을 지난 오늘날까지 이 이야기는 세계
각국 말로 번역되어 한 없이 퍼지고 있
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도 "이슬 이야기"만큼 못
지 않은 훌륭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

니 오히려 더 무게 있는 이야기가 필
요할까 합니다. 대지 이런 따위의 이야
기는 "우언" (寓言) 이라고 하는데, 이
우언의 본 교장은 아아 중국이라고 나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하여 나는
그 가운데서 여러 분 소학생의 원고
덕택히 뜻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몇 개씩
추려서 앞으로 몇 달 계속해 실어보
려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모두 지금으로
부터 약 2,700년 전으로부터 약 2,100년 서
이에 있던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는 것
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 박 발

양나라와 초나라와의 국경에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그 두 나라에
원두막이 있고 발이 있었는데, 발
에는 호박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
다. 양나라 원두막 사람들은 부
지런하여, 호박 발에 물과 기름을
잘 주었으므로, 탐스러운 호박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초나라 원두막 사람들
은 게을러서, 별로 호박발에 물과
기름을 잘 주지 않았기 때문
에, 열리는 호박마다 딱딱 마른
것 뿐이었습니다.

초나라의 관리는, 양나라의 호
박이 먹음직스러울때, 저의 나라
호박은 못쓰겠으니, 열일이나고
원두막 사람들을 나무랐습니다.

호명을 듣고 나니 초나라 원두막
사람들은, 양나라 원두막 호박이
저희것보다 나은 것이 화가 나
서, 밤에 어둠 틈을 타서, 불의
양나라 발에 들어가 그 호박들을
짓밟고 짓이겨버렸습니다. 그러
서 호박들은 못쓰게 된 것이 많
았습니다.

양나라 원두막에서도 이것을
알자 저희 관리에게 고해서,
"저놈들이 그따위 짓을 했으니



이쪽에서도 물레 들어가 오박
말을 찍쳐 버리지요.”
하셨습니다. 관리가 이 말을 듣
고서, 곧 그 고을 장관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장관은 말하셨습니다.

“그건 안될 말이야. 그렇게 하
면 서로 원망의 씨를 뿌리는 것
이 아닌가. 남이 나쁜 짓을 하
었다고, 이쪽에서도 나쁜 짓을
한다면 끝이 없는 법이야. 좋은
수가 있네. 오늘부터 밤마다 사
람을 보내서 물레 초나라 오
박 말에 물을 흥건 주고 오도
묵 하게. 물키면 안돼.”

그리하여 양나라 원두막에서는
밤마다 물레 초나라 원두막 오
박 말에 물을 흥건 주고 물
아셨습니다.

초나라 원두막에서는 아침에
말을 풀이다녀 보니까, 물이 제때
모 주워져 있으며 무럭무럭 오박
은 켜졌습니다. 이걸 참 이상한
일이라하고, 초나라 원두막 사람
들이 가반히 숨어서 보니까, 뜻
밖에 양나라 사람들이 물과 거름
을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초나라 고을의 장관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여 이 얘기를
왕에게 전하셨습니다. 왕은 이
것을 듣고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
셨습니다.

② 어미 참새와 새끼 참새

그물을 치고 참새를 잡는 사람
이 있었습니다. 공자님께서 이것
을 보실즉 모두 주둥이가 노란
새끼 참새 뿐이었습니다.

“그물에 잡히는 것이 모두 새



끼가 아닌가? 이미는 흰마리
도 없으니 어찌된 일인요?”
하고 새잡는 사람에게 물었습니
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원요, 새끼 참새라도 어미를
따라다니는 습은 잡히질 않는
답니다. 그러하오나 새끼 참새
가 앞서고 어미가 뒤를 따라
오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그물에 걸리는걸지요.”
이 말을 들으시고, 공자님께서
는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
셨습니다.

“사람도 사람다운 길을 걷자면
은 이끄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좋은 인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모두 그물에 걸리고 말
것이다.”

③ 말고기와 술

진나라의 목공이란 분이, 사람
하는 말을 타고 하루는 풀 밖으
로 놀러 나갔었는데, 어떻게하
다가 그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
더 갔을까 하고 사방을 찾아보
았으나 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일 자담이 없었습니다. 실상
은 여러 사람이 그 말을 잡아 죽
이어 그 고기를 먹고 있었던 것

입니다. 목공이 그 말이 자기 말
인줄을 알자,

“너희들이 먹는 말은 내가 따
고 온 말이다!”

하셨습니다. 말고기를 썰어 먹고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자빠졌
습니다. 임금의 말을 잡아 먹었
으니 무슨 형벌을 받을지 몰라서
도망하러 드는 사람까지 있었습
니다. 이 때에 목공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 잠깐들 있거라. 좋은 말고
기를 먹고 술을 먹지 않으면 죽
는다는 말을 들었다. 다들 술
을 마시어라.”

하고 술까지 받아다 주어 먹었습
니다. 말을 잡아 먹은 사람들은
물시 부끄러워 하셨습니다.

그런지 세 해가 지난 뒤였습니
다. 이웃나라가 이 나라에 쳐들어
왔습니다. 이 때에, 삼년 전에 말
을 죽여 고기를 먹던 사람들은,
서로 서로,

“자 다들 나오너라. 목숨을 던
지어 그 때의 은혜를 갚을 때
는 왔다.”

하고, 목숨을 걸고 죽기모색 싸



운 자담에, 이웃나라 군사가 프
게 쳐들어 목숨이 위태롭던 목공
이 살아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웃나라 임금을 사로잡았다 합니다



우리 나라에 서누가 제일 먼
서양악을 연구하였나?

백 우룡 선생

조 응 만

여러 분은 "레디오"에서 아악(雅樂)을 드르셨을 것입니다. 아악은 무엇이고 하니, 옛날 궁중에서 무슨 예식이나 잔치가 있을 때에, 임금님 앞에서 아뢰는 음악입니다.

이 아악은 까마이득한 옛날부터 몇 백년을 두고 우리 나라 궁중에서 려오던 것으로, 아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관리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몇 백년을 두고 아악을 해오다가, 근래에 와서 개화를 해가지고, 서양 여러 나라들과 교제를 터서, 외국 사진들이 자주 왕배하게 되고, 또 궁중에서도 서양식으로 모든 절차를 차리게 되자, 양식 절차에는 역시 양악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아악보다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식 절차에는 양악을 쓰게 되었는데, 우리 나라에 그 때 무슨 양악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독일 사람 **엑칼트**를 청해다가, 조선 사람에게 양악을 가르치도록 하였었습니다. **엑칼트**란 글은 어떤 분이고 하니, 본국은 독일인데, 젊어서 일본에 건너가

서 **일본 국가(國歌)**의 곡조를 만든 분입니다. 이 분 따님은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마이델**이라는 프랑스 사람의 부인이십니다. **마이델**씨는 사십년 동안이나 서울에 계시던 분으로, 해방전까지 **경성 대학**과 **그밖에 학교**에서 **프랑스** 말을 가르치시던 분입니다.

엑칼트선생은 정부의 청을 받아서, 지금 **총무**가 도서관이 되어있는 자리에다가 **양악대(洋樂隊)**를 설치하고, **조선 학생**들한테 양악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었습니다. 나관불기, 색소폰불기, 그밖에 여러 가지 서양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독일**에서 주문해다가 가르치는데, 그 때 제일 먼저 이 양악대에 들어와서 양악을 배우고, 또 제일 먼저 **렉트(지휘막대기)**를 들어서 악대를 지휘한 사람이 **백 우룡(白禹鏞)**이라는 분입니다.

백선생은 그 때 나이 스물 둘로서, 서력 1901년에 **엑칼트**의 양악대에 들어가서, 백운지 일년이 못되어 양악의 여러 악기 쓰는

법을 골고루 배웠습니다. **엑칼트**선생은 **백**선생의 놀라운 재주를 인정해서, 다시 그에게 **컨덕트(指揮)**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지휘하는 법은 적어 어려운 것이었지만, 이것도 재빨리 배워서, 얼마안되어 **엑칼트**선생이 없어도, 훌륭하게 악대를 지휘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노일전쟁(露日戰爭)** 바로 직전이라, 각국 외교관의 왕래가 잦았고, 따라서 여러 가지 예식과 연회가 많았었는데, 이런 궁중의 행사 때에는 당당한 우리 양악대가, **백** 선생의 지휘 아래 연주를 하여 갈채를 받았었습니다.

백선생은 지금 살아계셨으면 칠십을 넘으실 노령이였을 것이지만, 나라가 망하고, 따라서 양악대가 해산되자, 불우한 환경 속에서 십여년 전에 별세하셨습니다.

지금 **마이델**씨 부인은, 자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인이 **백**선생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동화집 · 임인수 지음★

봄이 오는 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백이불**(성경)입니다.

이 동화집은 그 **백이불**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집어걸단 뽑아서 아름다운 동화로 쓴것입니다. 누

구나 다같이 읽어야할책!
북양의애기 ★비둘기애기 ★
 고요한밤에 **푸아름다운세벽**
북물고기배속에서 사물잔사람
부회리바람을타고 ★압북장
 가의서를 **★막넝쿨밑에서** 그
 밤에비핀

(그림·임동은선생)

43 판 미분 책값 150 원

과는비 **조선기독교서회** 서 출
 출판부

여러분의
글 동 무

아협 책들 어다든지 대 환영

여러분의 명절 어린이날에 좋은 책을 가집시다.
여러분의 "소학생"을 만드는 우리 아협의 책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읍니다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만드시고 어린이를 위하여 일생을 바친 소파·방 정환 선생의 동화독본 모두 다섯권

★ 다 팔리고 절판되었던 책도 재판하여 한질이 되었습니다 ★

1. 까 치 옷	1. 호랑이형님 2. 이상한 샘물 3. 잠자는 왕녀 4. 까치옷 5. 옥심 장이땅장수 6. 과거문제 7. 양초귀 신 8. 아리바바와 드록 9. 만년 사쓰	그림·김 의환 값 140원
2. 울지 않는 종	1. 눈이두운 포수 2. 삼손이야기 3. 개구리왕자 4. 부울부울이야기 5. 울지 않는 종 6. 한네제의 죽임 7. 풀머간 삼남매	그림·정 현웅 값 140원
3. 나 비 의 꿈	1. 나비의 꿈 2. 막보의 큰장사 3. 요술왕 아아 4. 실덕술덕 5. 하 아예문의 귀난터 6. 난과선	그림·윤 희순 값 120원
4. 귀먹은집오리	1. 벚꽃이야기 2. 귀먹은 집오리 3. 마음의 꽃 4. 산드룡의 유리구두 5. 공중의 귀신번호 6. 금시계 7. 하나에 하나	그림·김 규택 값 140원
5. 황 금 거 위	1. 짧은 동화 셋 2. 시골위 서울구경 3. 삼대성 4. 꽃속의 작은이 5. 황 금거위 6. 어부와 마귀 7. 왕자와 제 비	그림·한 흥택 값 140원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동화를 이처럼 재미있게 꾸민 것은 없었습니다. 어른들도 좋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뿐입니다.

재미있고 유익하고 품이 있는 아헝 그림 얘기책

만화책이라고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책과는 다릅니다.



아헝 그림 얘기책 중에 없는 것이 많지만 이번에 좋은 것을 가려서 재판을 내었으니 아래 광고를 보시고 또 동나기 전에 사십시오.

★ 지금 팔고 있는 그림 얘기책 ★

보물섬 김 용환 그림·작은들 글	영국의 문호 스티븐슨의 유명한 소설에서 옮긴 것인데, 용감한 소년 필이 무서운 해적들과 외떨어진 섬에서 크게 싸우는 모험이야기. <p style="text-align: right;">값 80원</p>
어린 예술가 김 의환 그림·작은들 글	푸란티어스의 개리는 소설을 가지고 꾸민 것으로, 불쌍한 어린 화가 벨로와 그의 사랑하는 개 파트마송와의 슬프고 순진한 이야기. <p style="text-align: right;">값 80원</p>
토끼전 김 용환 그림·작은들 글	우리나라 전설 토끼전에서 옮긴 것으로, 익살맞고 아슬아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분의 아버지 어머니도 잘 아시어 모두 함께 좋아하는 책. <p style="text-align: right;">값 80원</p>
로빈슨·쿠르소 정 현웅 그림·작은들 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합니다. 아무도 없는 쓸쓸한 섬에 닿은 로빈슨·쿠르소는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납니다. 아기자기한 이야기. <p style="text-align: right;">값 80원</p>
린콘 아헝 꾸민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존경을 받는 아보라함·린콘의 이력을 데 이야기입니다. 정직하고 가난한 린콘이 흑인들을 해방시키고 남북을 통일할 때까지. <p style="text-align: right;">값 150원</p>
꿈나라의 아리쓰 정 현웅 그림·작은들 글	세계 어린이들이 무슨 책을 제일 많이 읽는가? 하고 미국에서 통계를 내니까 바로 이 꿈나라의 아리쓰인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우선 책사에 가서 실물을 보십시오. <p style="text-align: right;">값 80원</p>



세계의 악성의 일장

세계의 악성 홍란과 엮음

김 의환 그림

만대를 내려가면서 온 세계 인류에게 아름다운 곡조를 들려주는 비에르덴, 쇼팽, 모차르트를 비롯하여 여러 유명한 음악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는 그들이 음악가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눈물겨운 생활을 하였나, 또는 유명한 곡조를 어떻게 하여 지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에게 음악의 뿐만 아니라 참으로 재미있는 대문입니다. 이것을 꾸민 홍란 선생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하시었고, 봉선화 같은 좋은 작품을 남기시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값 80원

조선음악독본 성경린 지음

김 의환 그림

자아, 여러 분은 서양음악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노래는 다 서양음악에 붙습니다. 그런데 조선음악도 어떤 것이 재미있습니까? 장담하겠습니까. 여러 분은 잘 모르십니다. 자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세지 어느나라 음악에도 지지 않는 훌륭한 음악은 우리나라 음악입니다. 우리 나라 음악은 음계가 세밀하고 악기가 풍부하며, 우리 민족의 성질에 맞습니다. 이런 훌륭한 음악을 어디까지는 궁중에서만 즐기었고, 민간에는 도무지 나오질 않아서 그래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린 선생은 구왕궁 아악부에 재직 이므로, 여러 분을 위하여, 일 부러 쉽고 재미있게 써 주신 것입니다.

값 100원



조선 음악 독본 일장

어린이 피아노책

어린이 피아노책 김 매리 꾸밈

김 의환 그림

피아노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어린이 피아노책은 모두 전문가를 만드는 책들이어서, 어린이들이 공부하기에는 딱딱하고 어려워서 실증이 납니다. 실증이 나면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조금도 실증이 안나고 즐겁게 피아노에 친하도록 훌륭한 교재가 새로 꾸며졌습니다. 이희 여사 매락 음악과 과장 김 매리 선생이 이것을 여러 분에게 맛보도록 다시 꾸렸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미필요!

값 300원

새로 지은 노래 동무 노래 동무회

노래의 곡조 무 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또는 골목에서 동무들끼리 재미있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들만 추려서 책을 만든 악보입니다.

값 100원

입학준비하는 상급생에게 드리는 선물

중 학교
들기 위한

소년 상식 1,000 문답집

상급생들은 몇 달 뒤에 중학교 고사를 치러야 한다. 이번에도 상식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올 터인데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가? 여기는 상식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1,000가지의 문제와 그 정확한 해답이 붙어있다. 그동안 중학교에서 냈던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나올만한 것을 가즈런히 추렸으니 참 편리한 책이다!

46판 90페이지. 값 1,40원. 지금 책사마다 파는중

이 영철 지음

학생 조선어 사전

값 250원

해방후 나온 사전중에 가장 많이 퍼진 사전은 이 학생 조선어 사전입니다. 아직 갖지 않은 분이 있다면 다 팔리기 전에 속히 구하십시오.

이 영철 지음

틀리기 쉬운 말

값 80원

한글 맞춤법을 알기 쉽게 배우려면 우선 까다롭고 틀리기 쉬운말부터 잡아내서, 이것을 이 해 틀리기 쉬운가 외에 냅시다. 아주 재미있게 풀어놓은 책!

박 태원 지음
김기창 그림

이순신 장군

재판이
나왔다

지금 서울신문에 임견왜탄을 연재하고 있는 박 태원 선생과 김기창 선생의 역사소설책입니다. 임견왜탄을 짓기 전에 두분이 어린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순신 장군을 꾸며 내셨습니다. 우리 나라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일생을 이 책에서 우러러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 나오자 금방 절판되어 없던 책입니다. 어서 사십시오.

아협책이 책사에 없을 때는 종로 문장각(文章閣)으로 주문하십시오.

피노치오

디즈니 * 그림 ⑥
작은 톰 * 역



(7)

기쁨의 섬에서

마차는 빨리 달려 갔습니다. 빨리 빨리 달려 갔습니다. 점점 더 빨리 빨리!

피노치오는 마침내 정작 사람의 아이들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피노치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람픽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에 큰 예야, 이리 와 나하구 이 뒤에 앉자꾸나.”

그 말 소리는 코에 울며서 무척 경음니다.

피노치오는 람픽하고 뒤에 앉았습니다. 저더러 “큰 아이” 라고 부른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람픽이 아주 색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차는 빠르게 달립니다. 더욱 더 빠르게 달립니다. 마침내 마차는 커다란 배가 있는 곳에 다달



았습니
다. 배 위
로 마차는
그냥 올라 갔
습니다.
마차를 싣고
배는 곧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를 떠 갔습니다. 이윽고 배는 기쁨의 섬에 닿았습니다. 거기서 배는 섰습니다. 아이들은 귀이 내렸습니다.

나귀들은 이상하

고 슬픈

눈초리

로 피노

치오를

훑어 보았

습니다. 그러나 피노치오는 나귀를 보려고도 안했습니다. 그는 람픽과 함께 경종 뒤에 내버렸습니다.

이곳이 바로 기쁨의 섬입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여기서 재미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재미를 많이 보았습니다. 기쁨의 섬에서는 날이 몹시 빨리 지나갔습니다.

“에 우리 무얼 던져 보자. 그래서 큰 소리를 내 보지 않겠니?”

하고 람픽이 말했습니다.

“그래, 거 참 좋다. 우리 큰 소리를 내 보자.” 피노치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장 이야기★

재래라는 외로운 할아버지는 나무토막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 살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무로 인형을 하나 만들어 이름을 피노치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푸른 선반이 할아버지의 외로운 것을 동정하여 피노치오에게 생명을 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피노치오가 정직하고 착하면 진짜 사람으로 전생을 주겠다고 하였읍니다. 재래와 피노치오는 기쁨이 끝까지 약속하고 착한 아이가 되었다고 하였읍니다. 그리고 피노치오의 동무로는 귀뚜라미 꼬미스가 늘 따라다니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노치오는 학교 가는 길에 뜻밖의 여우와 도둑쟁이의 꾀임에 빠져서 연극단에 끌려갔다가, 푸른 선반의 도움을 받아 빠져 나왔읍니다.

그러나 다시 여우와 도둑쟁이는 피노치오를 마차군에게 팔았읍니다. 이 마차군은 기쁨의 섬이라는 데로 태워다 갔읍니다.





“그래 그래. 창 밖으로.”

람픽이 외쳤습니다.

“창 밖으로 쫓겨 내 던져 볼까?”

“그래 그래, 창 밖으로 내 던지자!”

피노치오가 맞장구를 치고서, 그리하여 둘이서 는 기어이 하고 말았습니다.

던져라! 던져라! 던져라!

부숴라! 부숴라! 부숴라!

그러나 이것을 본 마쉴군은 그냥 웃기만 하였 습니다.

또다시 기쁨의 섬에서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예, 우리 흙탕 속을 걸어 볼까?”

람픽이 말했습니다.

“그래, 흙탕 속을 걸어보자.”

피노치오가 찬성했습니다.

“우리 가서 진흙을 집어다가 저기 저 새간들에 던지자.”

“그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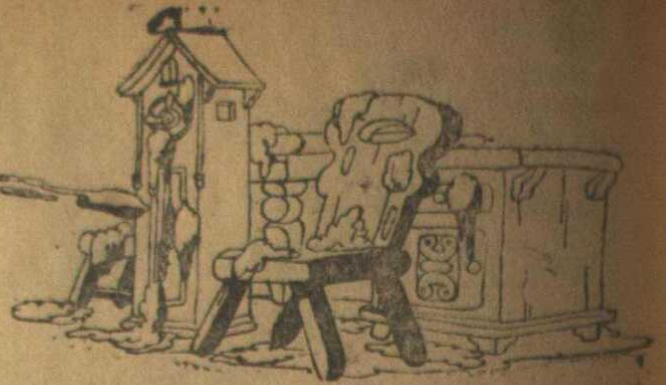
둘이서는 곧 그렇게 했습니다.

받아라 진흙! 받아라 진흙! 받아라 진흙!

새간이 다 튀나! 옛다 받아라 진흙!

이랬는데도 마쉴군은 그냥 웃기만 하였습니다.

“우리 저 새간들을 칼로 째아 내자.”



람픽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피노치오가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또 그 짓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이서는 사랑법칙을 한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닥치는대로 먹어제었습니다. 퍼 자를 닥치는대로 먹었습니다.



둘이서는 그 전에 재미있게 지내던 일은 커다 잊어 버렸습니다. 다 잊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귀들은 이상하고 슬픈 눈초리로 둘을 훑어 보았습니다. 마쉴군은 그래도 서서 웃기만 했습니다. 저미늬가 참다못해 소리쳤습니다.

“아서라 피노치오야, 그러지 마라!”

그러나 피노치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람 픽이 하는대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마쉴군은 크게 웃기만 하였습니다.

“그렇다. 너희들은 그만하면 됐다. 내가 팔아 먹기에 꼭 알맞게 됐다말야.”

그러나 피노치오는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기나 다들가, 금방 이상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람픽의 두 귀가 달라졌습니다. 두 다리가 달라졌습니다. 두 팔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고 하니, 람픽의 두 귀는 나귀의 귀가 되고, 두 다리는 나귀의 뒷 발이 되고, 두 팔은 나귀의 앞 발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콩무니에는 나귀의 꼬리가 많이 있었었습니다. 람픽은 나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마삿군이 팔아 먹기 꼭 알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뭐했니?”



피노치오야, 어서 뛰어라, 뛰어. 빨리 빨리 도망가라. 어서어서. 지금 도망 안가면 너도 나귀가 된다.”

찌미늬가 악을 썼습니다.

피노치오는 뛰었습니다. 람픽 곁에서 뛰어 달아났습니다. 나귀 곁에서 뛰어 달아났습니다. 마삿군 곁에서 뛰어 달아났습니다. 기쁨의 섬 밖을 떠돌고 있는 짐을 다하여 달아났습니다.

(8)

피노치오에게 온 편지

피노치오는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간질히 욕을 언라했습니다.

저주라미 찌미늬는 그 귀를 따랐습니다.

“그래 람픽이 나귀가 되다니!”

피노치오는 기가막히 이렇게 외쳤습니다.

찌미늬가 이 말을 듣자,

“네 말대로 람픽은 나귀가 되어 버렸다. 그

런데 너도 너무 벌수 없이 나귀야. 뭐 거지반 나귀

야. 피노치오야, 너무 인젠 거지반 나귀다. 그

말을 어떻게 더했을까?”

“어떻게 다 무슨 소리냐?”

“네 귀를 좀 보렴. 네 귀가 그게 나귀 귀가 아니고 뭐냐. 또 네 콩무니에 달면 저 다 뭐냐. 그게 나귀 꼬리가 아니냐?”

피노치오는 그만 꺾적 주저앉아서 영영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울것 없다. 운다구 무슨 소용이 있겠니? 어떻게 땀 도라를 생각해야지.”

“어이구 내가 학교에만 갔더라면! 어이구 내가 아버지 말을 들었더라면!”

“이제 와서 그따위 소리를 하면 뭘해.”

찌미늬는 좀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던 말이나.”

피노치오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번듯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울지. 알았다. 난 집으로 가야겠다. 제페로 아버지에게로 가야 해.”

이렇게 말하고 피노치오는 그걸로 곧장 떠났습니다. 찌미늬는 그 귀를 따랐습니다.

피노치오는 나귀 귀하며, 나귀 꼬리하며를 남에게 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걸었습니다. 이리키 때문에 집에까지 오는게 오랜 날자가 걸렸습니다.

드디어 어느날 밤에 피노치오는 제페로가 사는 마을에 다달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었습니다. 춥고도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노치오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한시바에 집에 가고 싶어서 못 견디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피노치오는 제페로 집에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피노치오

는 꺾적 주저앉았습니다. 목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

지는 어딘

가셨단 말

씀입니까?”





귀뚜라미 찌미늬도 울
었습니다. 제페토는
어디론가 가고
있지 아니하였
습니다.

“돌아가셨나
보다. 내가
만일 착
하기만
했더라면
아버지
는 아

직 살아 제쳤을지 모를 것을! 내가 말을 잘
들었던들!”

피노치오는 슬퍼 못 견뎌었습니다. 울고 울고
하였습니다.

제페토는 어디론가 가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찌미늬는 슬픈 얼굴로 피노치오를 바라 보았습
니다. 피노치오도 슬픈 얼굴로 찌미늬를 바라 보
았습니다.

“그래도 실마 무슨 도리가 있겠지.”

하고 찌미늬가 말한즉,

“그러나 무슨 도리가 있던 말이냐.”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이럴 즈음, 갑자기 광채가 번쩍 하고 빛났습니
다. 그 광채는 들의 머리 위에 비쳤던 것입니다.

“저것 봐라. 저 광채를!”

피노치오가 말했습니다.

그 광채 속에서 새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오오, 귀여운 새야. 대체 어찌면 좋을까, 애
기좀 해 나우.”

피노치오가 이렇게 말하고 나더니, 갑자기 잠
작 놀라는 소리로,

“저것쯤 봐. 새가 우리들에게 필 가져 왔다!”
하였습니다.

새가 편지 한 장을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보았
습니다. 이윽고 편지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
래로 아래로 날아 내려 왔습니다. 피노치오는 편
지를 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들여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마 푸른 선녀한테서 온 것일텐데, 글
자를 알아야 무엇이든 읽는지 알지.”

피노치오는 한숨지면서 말했습니다.

“학교에만 잘 다녔더라면—”

“올다. 푸른 선녀가 보냈을게다. 필시 제페토
할아버지 애길거야. 어더 이리좀 내.”

찌미늬가 편지를 달래서 읽었습니다.

“오. 오. 제페토가 살아 있다.”

“뭐? 아버지가 살았어? 찌미늬, 그대 편지엔
뭐라고 써있나?”

“아직 살아 있다는 얘기야. 네가 집을 나갈 땐
에 할아버지는 너를 찾으러 길을 떠나셨단다.
고양이 튀가로와 금붕어 클레오도 데리고, 할
아버지는 바닷가에 나와서 포트를 만들고는,
튀가로와 클레오와 함께 그 포트를 탔대. 그리
고는 기쁨의 섬으로 갔대. 그랬더니 큰일이 났
어. 도중에 고만 고래를 만나 한 입에 삼키웠
단다.”

이 말을 듣자, 피노치오는 소리쳤습니다.

“무어? 고래한테 먹히었어?”

“그말대. 몬스트로라는 놈야. 그 놈한테 제페토
고 튀가로고 클레오고 몽땅 삼키웠대!”

“그래 지금 어드메쯤 있다고 그러니?”

“여기 보면, 셋이서는 포트에 의지하고 있대.
몬스트로가 포트채 삼킨 모양야!”

이 소리를 듣고 피노치오는 벌떡 일어났습니
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가자! 우리는 어서 가서 구해 내자!” (계속)
★그래한테 삼키운 제페토할아버지, 그리고 튀가로
와 클레오. 그들은 과연 살아 있을까요? 또 나
가 거의 떠러다 만 피노치오가 그들을 구해 낼 수
있을까요? 귀뚜라미 찌미늬는 어떻게 할 것일지?
다음저를 기다리십시오. 다음저에는 큰 모험이 일어
납니다.

☆ 만화 영화 ☆

피노치오

모습과 목소리의 입자는 누구누군가?

우리 "초학생" 에 열제 중인 여러 분의 "피노치오" 는, 미국의 유명한 만화 영화 제작자

인 월트·디즈니 씨가 꾸미었다 함은 이미 말씀하였지요.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 때에 디즈니 씨는, "피노치오" 이야기에 나오는 피노치오 타든지, 제케트 할아버지 타든지, 키쿠타미 썸미, 스트롬볼리, 어우와 도둑병이 같은 여러 사람과 짐승들에 근사한 모델을 풀랐습니다. 모델이라는 것은, 무엇을 그림 때에 실물을 놓고 그것을 본떠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아래 있는 사람들은 곧 "피노치오" 영화의 모델들인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 분이 친히 여정 만화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이들은 또 각기 목소리를 집어 넣어 만화가 말은 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러면 몇 사람 모델을 여러 분 앞에 소개하겠읍니다.

★피노치오의 모델이요 목소리 입자는 열 세살 된 딕키·콘 스라는 소년 배우인데, 방종국에서 노래 잘하기로 유명 하며, 이 영화에 목소리를 넣는 동안에 열급이 어기 돈으로 치면 십 팔만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 좋고 의로운 제케트 할아버지 에는 크리스찬·랩 이라는 선 두 살 된 늙은 배우가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배우는 영화나 연극에 많이 출연하여 벌써부터 아들이 남 배우입니다.



부슬나만 모자에 에복을 입은 키쿠타미 썸미, 비록 몸은 작으나 착한 마음으로 피노치오 를 돕는 썸미 는, 어기 사진에 있는 그림프·세드워 드라는 배우가 모델입니다. 이 배우는 기묘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웃음거리 연극과 영화에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피노치오 를 두 번씩이나 관아먹은 속 깊고 간사한 어우는 찰리·켄백트 라는 선 한 살 된 배우인데, 이 배우도 웃음거리가 전문입니다.

★나무로막 인형 피노치오 에다 생명을 불어 넣어 주었고, 피노치오 를 착한 아이로, 훌륭한 아이로 만들기에 애써 주는 폴론 선녀의 모델은, 세 번 얼굴짜 예쁜 목소리를 가진 이브린·비나 불입니다.



★피노치오 를 어우에게 사서, 무대에 올려 놓고 돈을 막 벌고, 피노치오 를 세상에 가둔 스트롬볼리, 그 우악스런 얼굴은 이 찰스·진필스 를 모델로 하고 목소리도 이 배우의 것을 넣었습니다.



사닥다리 위의

로빈



그곳은 내 방에서 아주 잘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왜 그

터나하면, 나는 날마다 언제나, 그 새들의 생활을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뉴우스를 어머니께 알려드리기 위해, 부리나케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새둥우리 속에 새끼 로빈이 살게 됩니까?” “그렇단다. 그러나 때때로는, 비바람이 불어 새둥우리가 날아가는 수도 있고, 다람쥐나 그 밖에 다른 새들이, 또는 장난꾸러기 어린이들이 새알을 훔쳐가는 일이 많단다.” 어머니는 조용히 알려주셨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는 그 새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새둥우리를 감시하겠어요. 그리고 나는 감시하는 한편, 새둥우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적어놓겠습니다.” “그것

나는 어느 공원 근처 큰 사과야드 앞뜰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셋이서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유희장 가까이, 불이 났을 때 사용하는 비상용(非常用)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 4월 밤계 개월 어느날 아침, 창문을 열고 무심히 밖을 내다보려니까, 이 사닥다리 위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디다. 그 새는 로빈이었습디다. 나는 무엇을 하려 왔나 관찰할 생각으로 자세히 눈여겨 보니까, 어디선지 또 한 마리 로빈이 날아와서는, 잠시동안 들이서 이리 저리 근방을 살펴보는 것 같이 몇번 돌러보고 날아보기도 하다가 저 멀리 날아갔습디다. 나는 굉장히 이것은 무슨 특질이 있으려나 생각하고, 이튿날 아침에도 내다 보았습디다. 그때 바로 로빈 한 마리가 입에 마른 풀을 물고 날아왔습디다. “저 로빈은 아마 이 근처 어디다 새둥우리를 지퍼나보다 어디다 짓나 좀 봐야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요. 얼마 후있어, 나는 로빈이 사닥다리 층계 구석진 모퉁이로 풀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디다.

참 좋은 생각이다. 제철은 나의 생활일기가 될걸.” 어느 틈에 오셨는지,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며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디다.

4월14일=한쌍의 로빈이 비상용 사닥다리에 둥우리를 만들고 있다. 먼저 오늘은 엄마 로빈이 둥우리 만들기를 시작했다. 엄마 로빈과 아파르빈을 구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왜 그런고하니, 책을 보아 아파르빈의 머리는 거의 검은 빛이고, 엄마로빈은 회색빛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엄마로빈은 마른 잡초부스러기와 진흙 등을 엉달아 붓고 와서 둥우리를 만들곤 하였다. 나는 창 바깥 언덕길 곳에 살판 올라기를 갖다 놓았다. 로빈이 이 설도 물어다 둥우리 만드는데 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또 어찌서 지원못이다 둥우리를 만드는 것인지 이상하게 생각했다.

4월15일=한쌍의 로빈은 서로 도와가며, 아직도 둥우리 만들기에 열심으로 일한다. 창 바깥을 보니, 어제 놓은 실은 벌써 잔뜩이 없다. 문을 열고 자세히 보니 언제 물어갔는지, 실 끝과 첫머리를 둥우리 사이에 기묘하게 끼



후로 있다. 오후, 엄마로빈은 동우리 속에 들어가더니, 이리 저리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었다. 아마 엄마로빈은, 동우리 모양이 반듯하고 튼튼한가를 시험하는 것이리라. 왜 그러냐하면, 동우리 속에서 알을 품고 있을 때, 안전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여, 무슨 방해나 생기지 않을까 미리 알아내기 위한가 보다.

4월 16일—오늘 동우리는 다 되었다. 그리고 맨 끝으로 로빈은 파른 풀을 많이 날라다 동우리 밑 바닥을 잘 덮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새끼 로빈들은 보드러워 편할 것이리라.

4월 17일—동우리 속에 알이 하나 있다.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푸른 빛이다. 여러 사람들이 로빈의 알을 푸르다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푸른 빛이 어떠한가를 똑똑히 물렀던 나는 이제야 바로 알았다. 얼룩도 점도 없는 아주 깨끗한 푸른빛,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다. 알의 크기와 길이는 1인치(吋)보다는 조금 작고, 4분지 3 가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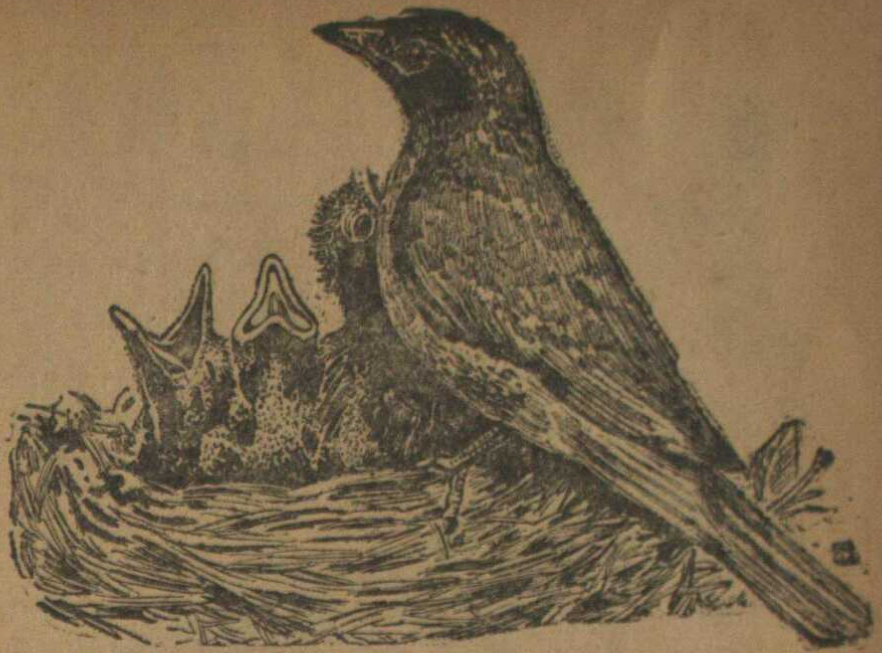
4월 18일—오늘은 또 다른 알 하나가 있다.

4월 19일—엄마로빈은 세번째 알을 낳았다.

4월 20일—오늘은 알이 네 개가 되었다.

4월 21일—엄마로빈은 오늘 아침에 동우리 속에 머물러 있다. 알을 따뜻하게 품고 있는 것인가 보다. 얼마 안되어 알이 깨어졌지.

4월 23일—아빠로빈이 엄마로빈에게 벌레를 물어다 주는 것을 보았다. 한때 엄마로빈은 먹이를 얻기 위하여 동우리를 떠나고 있다. 그런데 이따간 때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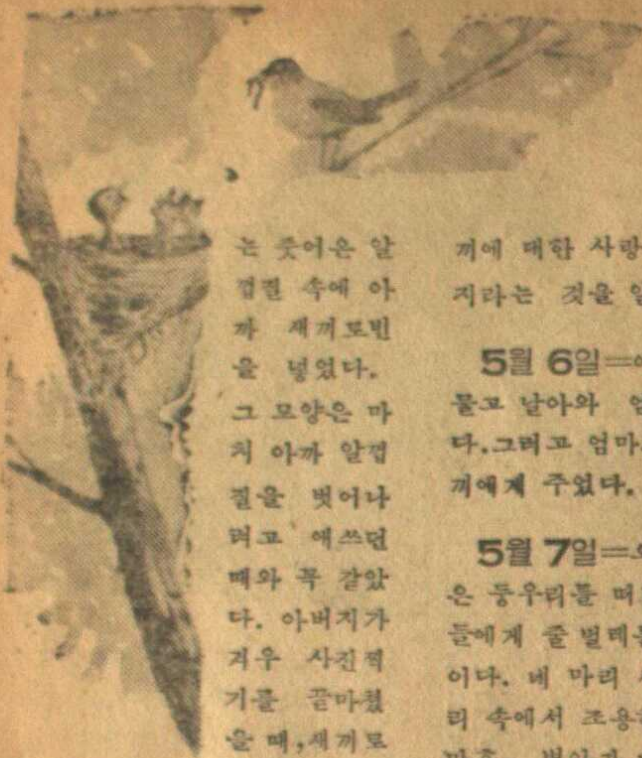


아빠로빈이 대신 알을 품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 나는 미물의 짐승도 서로 도와가며 자손을 보호하고 살아나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4월 25일—오늘은 비가 몹시 쏟아진다. 오늘은 잠시도 동우리를 떠나지 않고 엄마로빈은 머물러 있다. 그는 온 몸에 비를 맞으며 보통날보다도 더 조심성스럽게 폭 날개를 덮어 알을 품고 있다. 마치 벌이 쾅쾅 쪼여 뜨거운 날 하듯이. 물론 만일 엄마로빈이 잠깐 동안이라도 동우리를 떠난다면, 알은 비를 맞아 차더차게 되어, 알 속 새끼로빈은 모두 죽을 것이다.

5월 3일—오늘 새끼의 알은 아무일 없이 다 깨었다. 동우리 속에 네마리 새끼로빈이 있다. 오늘 저녁 잠깐동안 엄마로빈은 동우리를 떠나 어디론지 날아갔다. 새 동우리 밑바닥에 평평히 네마리 새끼로빈이 누어있다. 이 새끼들은 모두 예쁘지 않고, 벗아리 모양 날지도 못하고, 거의 모두 반가빳은 몸이라 하는 것이 좋았다. 그들은 모두 조금도 털을 갖지 않고, 아주 조금만 눈에 보이게 할만큼 작은 날개죽자를 가

졌다. 그리고 눈은 고양이새끼 모양 모두 감고 있다. 또한 그들의 크기란 먼저 그들이었던 알보다 더 크지는 않았다. 입은 웃으울만큼 크고 주둥이는 꼭 짧다. 아버지와 나는 더 자세히 보려고 동우리 있는 층계로 갔다. 바로 그때 우리들은 네번째 새끼는 아직 등어리에 알껍질이 덮여 있어,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아 좋은 사진재로군. 반은 알이 깨지고 반은 알 속에 있고..." 이렇게 아버지는 말씀하시며 카메라를 가질러 방으로 가신다. 그 동안에 알껍질은 모두 벗겨졌다. 얼마후 엄마로빈은 돌아와 빈 껍질을 보고, 그것을 입에 물고 날아가 등발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버렸다. 아마 엄마로빈은 정녕로 다른 껍질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이다 버렸을 것이겠지? 이윽고 아버지는 카메라를 가지고 오셨으나, 사진 찍기에는 너무 늦었다. 아버지가 몹시 실망해 하시기에 나는 엄마로빈이, 알껍질 버린 곳을 손가락질 하였다. 아버지는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오른는지, 카메라를 나에게 가지고 알껍질을 찾으러 가셨다. 아버지



는 뜻이든 알
겅질 속에 아
까 새끼로빈
을 넣었다.
그 모양은 마
치 아까 알겅
질을 벗어나
려고 애쓰던
때와 꼭 같았
다. 아버지가
지우 사진적
기를 끝마쳤
을 때, 새끼로

빈은 알겅질 속에서 나올 수 있었
다. 우리는 방으로 돌아왔다. 그
리고 나는 또 창가에 걸터앉아
새둥우리를 관찰했다. 얼마 안있
이 새둥우리로 다시 돌아온 엄마
로빈은, 아까 자기가 갖다버린
알겅질이 둥우리 속에 들어 있
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아,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머리를 가
우뚱거리며, "웬일일까? 알겅질
은 내가 조금 전에 갖다 버렸는
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핉핉 그는 알겅질을 보고 있더니
할 수 없다는 듯, 다시 알겅질을
물고 날아갔다. 그러나 곧 비리
지 않고, 핉핉 입에 문채, 여러
번 이곳 저곳 뛰어다니다가, 어
디다 버렸는지 비리고 날아왔
다.

5월 5일—오늘 엄마로빈은
하루종일 새둥우리를 떠나지 않
고, 조심스럽게 날개를 펴서 새
끼를 보호하고 있다. 아마 이제
일어난 일이 하도 이상해 새끼
들에게 좋지 못한 일이 있을지 염
려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온종
일 조금도 새끼들을 볼 수 없었

다. 그리고 미
물의 짐승들
도, 말은 사
람과 통하지
않으나, 행동
과 생각과 새

끼에 대한 사랑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라는 것을 알았다.

5월 6일—아파로빈이 벌레를
물고 날아와 엄마로빈에게 주었
다. 그리고 엄마로빈은 이것을 새
끼에게 주었다.

5월 7일—오늘이야 엄마로빈
은 둥우리를 떠났다. 아마 새끼
들에게 줄 벌레를 잡으러 간 모양
이다. 네 마리 새끼로빈은 둥우
리 속에서 조용히 쉬고 있다. 얼
마후, 별안간 네 마리 새끼들은
고개를 들어 작은 머리를 둥우리
위로 내밀고, 모두 커어나란 입을
비렸다. 보너 어느 틈엔지 엄마로
빈이 벌레 날아오고 있지 않은
가. 이것을 보고 나는, 엄마로빈
은 자기가 돌아왔다는 것을 딱찍
어리며, 새끼들에게 알려주었다
는 것을 알았다. 새끼들은 아주
작은 몸을 귀엽게 내밀었다. 그
리고 그들의 주둥이는 아주 넓게
벌려졌다. 엄마로빈이 새끼에게
벌레를 먹이고 날아간 조금 후,
아파로빈이 어디선가 벌레를 물
고 날아와 다
른 새끼에게
먹이고 또 날
아갔다. 어떻
게 그들은 하
루종일 열달
아, 번갈아 날
아와선 무엇
이고 새끼들
에게 먹이고
가고 또 벌레
를 물어오곤
하였다.

5월 8일—새끼로빈들은 날라
올만큼 빨리 자랐다. 그러나 이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몸에 비
하여 끔찍스런만큼 많이 먹었
으니까? 그래서 엄마로빈과 아
파로빈은 벌레를 찾아다니고 불
어 나르기에 조금도 쉴새가 없는
것 같다.

5월 9일—하룻동안에 새끼로
빈이 먹은 벌레와 곤충들은 자기
몸무게보다도 많았다. 그러니까
내가 새끼로빈과 마찬가지로 먹
는다면, 내 몸무게가 70파운드이
까, 70파운드의 식물(食物)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5월 12일—나는 오늘 하루 종
일 새둥우리를 관찰할 수 있었다.
내가 보고있는 동안 새끼로빈들
은 일곱 벌레를 먹었는데, 식물의 대
부분은 벌레(지렁이, 혹은 구더
기 같은 종류)들로, 새어보았더
니 16 개였다. 벌레 한 개의 길
이는 보통 4 인치 가량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식물도 조
금 먹었다.

5월 13일—새둥우리를 관찰하
고 있는 동안, 엄마로빈과 아파
로빈이, 새끼들을 위하여 먹을 것





을 찾아다니고 물
어오기에, 얼마나
애를 쓰고 열심인
가를 잘 알았다.
새끼들은 잘 먹고
잘 잘았다. 인제
는 몸에 털도 나
고 날개도 풀기 시작한다.

5월 14일—나는 엄마르빈이
벌레 잡는 것을 오늘 처음 보았다.
벌먼저 엄마르빈은, 머리를 가우
둥거리며 땅 위를 이리 저리 가령
게 뛰어다니다가, 들인 한 곳에
가서 가만히 머무른다. 그리고 잠
시 그곳을 눈여겨 보더니, 주둥이
로 걸치걸치하고 더러운 곳을 파
기 시작한다. 얼마 후 무엇인지
잡아 끌어 내는데 그것은 지렁이
였다. 그는 곧 그것을 물고 봉우리
로 날아가 새끼에게 먹여주었다.

5월 16일—오늘 벌먼저 까진 새
끼르빈이 처음 봉우리를 떠났다.
엄마르빈은 벌레를 하나 물고 사
닥다리 총제로 날아갔다. 네마리
새끼르빈은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떡떡어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엄마르빈은, 아무런 심하게 떡떡
어리모 다시 봉우리로 돌아가지
않고, 그 대신 한 2피이크쯤 먼
어진 총제에 서서 “떡떡떡” 새끼
들을 부르기 시작한다. 얼마 후
새끼를 가운데 그중 큰 새끼하나
이, 여러 번 애를 써서 기어이
봉우리를 기어올라 사닥다리 총
제로 나왔다. 그리고 킁킁히 기
어 엄마르빈에게로 가서 벌레를
잡어 먹는다. 그들이 있는 총제는
내가 있는 유리창에서 똑바로 보
이는 곳이였기 때문에, 아주 확
실하게 볼 수 있었다. 그 새끼르
빈은 가슴에 점점점이 있으며,
크기는 엄마르빈만큼의 크기로
보였다. 그리고 어느틈엔가 울음
같은 주둥이를 갖게 되었는데, 공
지는 아직도 짧다. 새끼르빈이

애독자 아협 상라기

★ 누가 무슨 운동을 하였을까? ★

아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 사람이 운동을 마치고 집으
로 돌아갑니다. 누가 무슨 운동

을 하였는지?

서로서로 맞는 그림의 번호를
찍어보내 주십시오. 맞추신 분
에게는 상을 드리겠습니다.



1등·10명—“그림에기적”과
“동화책” 환권적.
2등·40명—“동화책” 환권
적.
마감·5월 20일
발표·“소학생” 7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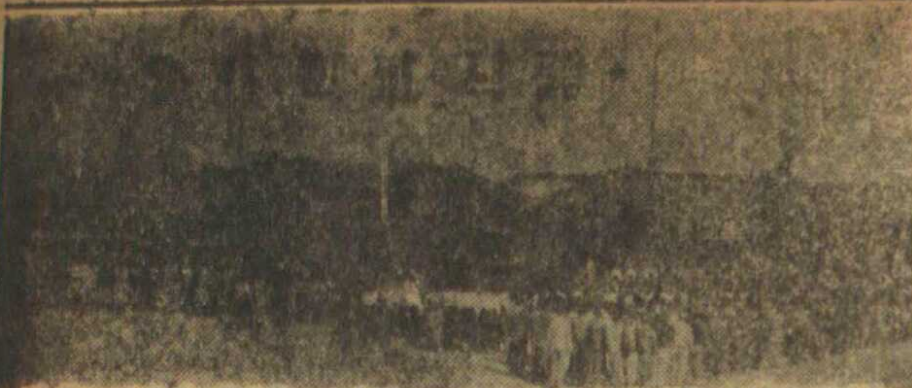
보내실 곳· 서울 鍾路2街
永保빌딩 兒協 “소학생”編輯部
주의할 것· 보내시는 분의
학교, 학년 이름을 똑똑히 속
에 쓰고, 봉투 겉에는 “현상”이
라고 쓰십시오.

벌레를 먹는 것을 보고 엄마르빈
이 지루으로 날아갔을 때, 아까
보다는 좀 낮게 봉우리로 새끼는
돌아왔다. 저녁 때 내가 다시 봉
우리를 보니, 엄마르빈은 또다시
제일 큰 새끼를 불러내어 사닥다
리 총제에 앉히고, 떡떡어리며
무엇인지 가르치는 모양이다. 나
는 아버지가 부르셔서 잠깐 방으
로 갔다가 돌아와 보니, 새끼르
빈은 어디론지 가버렸다. 이것은
물림없이 자기 날개가, 날아다니
기에 충분히 튼튼함을 안 까닭이
리라.

5월 17일—오늘은 새봉우리가
땡땡 비었다. 남어지 새 마리 새
끼르 봉우리를 떠났다. 아예
를 내려다보니, 저쪽 공원이래
풀밭에서 강중강중 뛰어다니는
아빠르빈을, 새끼 두 마리가 서

루른 걸음으로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아
빠르빈이 새끼르빈에게, 벌레 잡
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같이
보인다. 내가 그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동안, 어디선지 엄마르빈이
날아왔다. 그러나 엄마르빈은자
기가 아빠르빈을 도우지 않아도 쥔
잡으리라 생각함인지, 그때로
또다시 하늘높이 날아가 버렸다.

이 글은, 어린이를 위하여 아메리카
시카고 대학 연구실에 재신 버저·모
르리스·리아커 선생님이 쓰신 기초과
학교육용서(基礎教科書) 가운데 새에
관하여 쓴 책 속에 있는 것으로, 아
선생님은 이밖에도, 동물, 식물, 자연, 또
는 화산 지질(地質) 등 이 우주에 있
는 것에 대해서 모두 재밌고 알기쉽
게 쓰신 것이 많습니. 이 후부터 “소
학생”을 통하여 많이 소개해 드리겠으
니 손꼽아 기다리십시오(현상실)



경기도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
(京畿道水原郡城湖面烏山里)에
있는 이 학교는, 단기 4246년 4
월,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오산
보통 학교라 이름을 붙이고 이

나라 농촌 어린이를 위하여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 후 4271년,
지금의 성호보 교명을 바꾸고,
36년이란 긴 세월을 척척하거
이 나라 새싹들을 키워온 학교



입니다. 지
금은 교장
김 성옥 선
생님, 교감
서 영석 선
생님과
26명의 선
생님들이, 200명 어린이들의 빛
나는 장래를 위하여, 밤낮을 가리
지 않고서도 교육에 분주하고 계
십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전국
소년 축구선수권 대회에서 당당
히 우승하여, 농촌 어린이의 특
색한 기상을 보여주었다 합니다.
(기자)

★ 나의 당부 ★

수원 성호 교장 김 성옥 선생
높고 큰 희망에 살자

이제 우리 나라는 훌륭한 독립
국가요, 우리 어린이의 앞길은 실
로 양양하다. 높고 큰 희망을 가
지고 바르고 굳세게 자라서 우리
나라를 발전시키고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명심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보다 앞서서 사람이 되자

지금까지 우리는 남보다 뒤떨
어져 살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서는 안되겠다. 남이
한 가지를 하건 나는 열 가지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다른 나라보다 앞서 나
아가는 국민이 되게 힘쓰도록 부
탁해 마지않는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자

남을 미워하고 남의 허물이나
드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고 방해
가 되는 것인가는 다시 말할 필
요조차 없는 일이다. 한 학교의
어린이로써 한 나라의 겨레로써
우리는 좀더 사랑하고, 마음과 힘
을 합하겠다는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하여 명랑한 학
교,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자.

제 10 회 수원 성호 학교치



동요 모두 모두 달리자

5의2 서 기 원

비행기는 뽕뽕 뽕뽕 푸른하늘 헤치며
기차는 칙칙 푹푹 철로위를 달리고
자동차는 뽕뽕뽕 신장로를 달리고
마차는 덜컹 덜컹 비탈길을 달리지
모두 두두 바쁜듯이 왔다 갔다하지요.



동요 옛날 얘기

3의1 서 익 원

화로가서 듣는얘기 옛날 얘기는,
호랑이가 말도 하고 담배도 먹고,
이불속에 듣는얘기 옛날 얘기는,
아들 낳고 딸 낳고 부자가 되고,
우리 엄마 줄타줄타 듣는 얘기는,
무섭고 우습고 재미도 있지.

★ 작 문 ★

나는 책상입니다

6회 1 문 석 종

나의 고향은 오산서 30리 밖에 있는 용주사(龍珠寺) 이었고, 그곳에서 제일 큰 소나무였읍니다. 나는 그때 매일 같이 열 동무들과, 그리고 바람과 같이 노박부르며 재미있게 놀았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호학교에 책상이 되어서 어동럽럽한 생활실에 놓여있게 되었으니,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어느 날이었읍니다.

오산 사주 무지무지하게 생긴 한 목수가 커다란 몸을 가지고, 구루마를 끌고 내 열 동무앞에 와서, 열 동무의 몸을 툭툭 돌아가며 만거보고,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그 열에 선 나를 보고 그 목

수는, 서슴지않고 내 다리에 등을 대고 비려고 했읍니다. 나는 이것이 웬 일인가 하고 무서워서 떨렸읍니다. 무지무지한 목수는 내가 떨떨하고 있는 것도 막 잘라서 쓰러뜨렸읍니다. 나는 이윽고 쓰러지고 말았읍니다. 그것은 내가 그곳에서 제일 크고 곧기로 유명한 탓이었지요. 그러나 움직일 줄 모르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었읍니다. 한참 쉬고난 목수는 쓰러진 나를 간신히 일으켜 구루마에 태우고 어디론지 데리고 갔는데, 그곳이 그 목수의 집이었읍니다. 그 이튿날 나는 다시 나무 커는 공장으로 옮겨갔지요. 공장 주인은 나를 기지에 넣었읍니다. 나는 또 한번 이게 웬 일인가 하고, 아픈 것도 참고 있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

는 아파서 소리를 못 지르니까요. 한참만에 나는 기계 속에서 어디 갈데로 갈라져 나있읍니다. 그 목수가 다시 와서 주인에게 나를 지른 값을 주고, 나를 목수방에 데리고 가서, 힘으로 자르고 대패로 밀고 못으로 박고 색을 칠해서, 나를 훌륭한 책상으로 만들었읍니다. 이렇게 책상이 된 나는 또다시 돈에 팔리어 지금 성호 학교의 책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어느 때는 내 얼굴에 흰 가루칠을 하고, 또 내 얼굴을 파고 깎고 또 구멍을 뚫어, 미끈하던 내 얼굴은 보기싫은 품보가 되고 말았읍니다. 지금도 그 용주사에 나의 동무가 있을 것을 생각하니, 언제나 그러한 것은 나의 고향 용주사입니다.



도화 6년 이 장 인

★ 우리 학교 교가 ★

오산내 맑은 물을 등에 지니고
무봉산 바라보며 힘차게 크는
반세기 유서깊은 배움의 낙원
걸어온 발자취 찬란도 하다
빛내자 성호 성호 어린이

단군님 지어놓신 대한의 강토
억만년 지키려는 씩씩한 새싹
비바람 속에서도 굳세게 크는
자유를 사랑하는 자유의 사도
복되다 성호 성호 어린이

돌아오는 아침해는 우리의 정신
오대양 육대주는 우리의 무대
세계를 불밝히는 봉화를 들고
한없이 범어나라 새나라 일군
빛나라 성호 성호 어린이

(윤 정 섭 지음)

사랑하자
우리 민족

습자 5년 이 숙 창

재소식

불조심 내가 먼저!

自動火災速報器 자동화재속보기

요 몇 동안 소방서에서 일을 하
서던 김 봉춘(金鳳春), 이 제현
(李濟憲) 두 아저씨는, 자주 불
이 일어나, 귀중한 생명과 소중
한 나라 재산이 순식간에 타버리
고 마는 것을, 그리고 불이 일어
난 것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집에서 일어난 불이
이웃집에까지 불어 큰 피해(被
害)를 입는 것 등을 늘 걱정하
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막고
불이 덜 나게 하며, 만일 불이 났을
때 기별이 없더라도, 소방서에서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하고
어려 가지로 연구하였던 것입니
다. 그리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번에 놀
랄만큼 훌륭한 기계, 즉 자동적
으로 불이 일어난 것을 빨리 알
려주는 자동 화재 속보기를 발명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즈음 완
성되었는데, 불이 집이나 큰 별
칭 한 어디서든지 일어났을 때에
는, 이 기계가 자동적(自動的)
으로 불이 일어난 곳을 가리키며,
동시에 신호, 즉 종이 요란하게
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
소리와 함께 불이 일어났다는 것
은, 저절로 소방서에까지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
가 완성된 후, 여러 차례 국내 각
소방서에서 실험한 결과, 성적이
우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기계를 관청, 학교, 공장, 또
는 그밖에 큰 회사나 별칭에 설
치(設置)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니, 이러한 훌륭한 기계가 우
리 나라 사람들의 손으로 발명되
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제 무역 박람회에 나아가는 우리 나라 국산품

이번 5월 30일부터 6월 10
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
리게된 캐나다 국산협회(國產協
會) 주최의 국제무역 박람회(國
際貿易博覽會)에, 상무부에서는
우리 나라에 고유한 국산품(國產
品)을 출품하려 합니다. 이것
은 우리 나라 상품을 널리 동서양
여러 나라에 선전 소개하여, 세
계를 상대로 국제진출(國際進出)
의 길을 여는 한편, 나라와 나라
사이의 친선(親善)을 꾀하는 것이
므로, 이미 동양에선, 중국, 마래
에 현방, 인도 등이 참가하고 있
으며, 지금으로 보아선, 호화로

운 국제적 행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내년의 일식(日蝕)

어디서 언제쯤 일어나나?

요즈음 아메리카 일식위원회
(日蝕委員會)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다음번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일식은, 내년 9월 12일 1
2시 즈음에서 아류산열도의 왓
쓰드에서 관측(觀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
회에서는, 벌써부터 이 일식을 관
측하려고 관측대 파견(派遣) 제
획을 세우고 있다 합니다.

—소학생 교양문고—
—느낌—
★제일권★
지은이...서울시 각국민학교,
문교부의 여러 선생님,
그림...김 의환 선생님
재미있고 유익한 책!
마음속깊이느끼는책!
5월 5일—어린이 날
나옵니다.
서울진성당 4가
총무로 93

★새로 나온 아홉 책★
노래동무 제1집
노래동무회 엮음
책값 100 원

★새로 나온 아홉 책★
꿈나라의 아리쓰
그림·정 현 응
책값 80 원

총인구조사 이야기

우리 나라 인구를 말할 때, 보통 3천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정확한 수치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오는 5월 1일 새벽 0시 현재로, 전국 일제히 총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강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분들이 날마다 다니는 학교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나이가 모두 같지 않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부모없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몇 남매가 손을 잡고 나란히 학교에 오는 동무도 있지요? 그리고 집 식구가 많은 사람, 식구가 적은 사람이 있는비, 그들의 직업을 보아도, 농업·공업·상업·어업·광업 또는 관공서나 회사에 다니는 공무원, 학자와 의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자세히 조사해야만 더욱 문명된 나라를 만들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한곳에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으므로, 그 수효를 정확하게 조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부터 세계각국에서는, 사람이 제일 적게 움직이는 새벽이나 밤중의 어떤 시각을 정하여, 자기 집에 그때 있는 사람을 (임시로와 있는 사람까지) 신고서에 적어 두면, 아침에 조사원이 돌아다니며 걸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총인구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로써 공부를 가르쳐야 할 아이가 몇사람, 나이가 많아서 일을 못하는 노인이 몇사람, 일할 수 있는 젊은이가 몇사람,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 선생이 될만 한 학력을 가진 사람의 수효 등, 또는, 산업과 경제면에 가장 필요한 점과 부족한 물건, 남는 물건은 무엇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니, 따라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되겠다는 것을 계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조사를 이용해서 유명인구를 들춰내려고 한다느니, 혹은 세금환당을 하기 위해서 한다느니, 또는 범

려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한다는 등, 오해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나, 절대 그렇지 않은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학생 여러 분은 아버님이나 어

머님이 이 취지를 잘 모르시고 오해하시는 분에게서거든, 아는대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처 통계국 제공)

애독자 아합 상라기

3월 처 표 발

★바른 대답과 뽑힌 분★

타조.....3 돌.....1
오리.....4 룯.....2

1등 10명

- 박 찬호 (서울 재동교 5년)
- 김 상림 (살랑진중신교 5년)
- 백 승렬 (서울 매동교 6년)
- 안 영배 (여수 서교 4년)
- 안 종숙 (서울 정릉교 3년)
- 김 승영 (서울서대문교 4년)
- 조 경호 (서울 창경교 6년)
- 교 충승 (서울 망령교 6년)
- 이 길자 (수원 오산교 3년)
- 전 용식 (서울사범부속교 4년)

2등 40명

- 오 창규 (순천 남교 5년)
- 조 경운 (서울 돈암교 4년)
- 김 대영 (서울 소외교 5년)
- 어 석훈 (서울 덕수교 4년)
- 김 세준 (연백 수화교 6년)
- 조 연행 (서울 돈암교 4년)
- 이 보운 (서울 모동 78)
- 임 병표 (서울 공덕교 5년)
- 반 은숙 (개성 만월교 3년)
- 김 종대 (부산 대신교 6년)
- 이 유희 (서울 마동교 2년)
- 손 경 (서울 청과교 5년)
- 이 순이 (원주 문막교 3년)
- 최 인숙 (서울 용산교 5년)
- 김 알순 (화산온천 강능지점)
- 오 수현 (서울 금화교 4년)

- 장 재환 (서울 창신교 5년)
- 윤 봉도 (서울 장신교 5년)
- 최 장준 (서울 수문교 4년)
- 최 병준 (서울 북정교 5년)
- 방 주덕 (서울 영희교 4년)
- 이 태원 (양주 진건교 5년)
- 신 종현 (경기 연안교 5년)
- 강 영근 (서울 매동교 4년)
- 유 병희 (경북 고령교 6년)
- 김 국환 (경남온천온천교 5년)
- 지 태용 (서울 청계교 2년)
- 이 재철 (서울 용강교 6년)
- 윤 동섭 (서울 아전교 5년)
- 김 영근 (서울 동로교)
- 김 학수 (경기 안성교 4년)
- 노 시백 (서울 미로교 4년)
- 노 영일 (서울 덕수교 2년)
- 여 우경 (서울사범부속교 3년)
- 주 현숙 (서울 정릉교 5년)
- 김 종성 (서울 무과교 5년)
- 장 이순 (서울청계교 4년)
- 함 철주 (서울 남정교 5년)
- 박 남진 (서울 효계교 5년)

★바로 맞추신 분이 많아 재배를 받아 등수를 정정한 편제로, 맞추신 분도 많이지 못한 분이 있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십시오. 애독자 아합 상라기* 문제는, 이 후부터 더 재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음편에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필로)

미래의 노년 **풍성한 과학시대**



① 어머님께 받은 조그만 과자 한개, 나는 얼른 조루몽성장약(成長藥)을 주사해 보았습니다. 뽕뽕 짙 짙 조그만 과자는 부풀어올라, 혼자서는 좀처럼 다 먹을 수 없을만큼 커졌습니다. 이 조루몽성장약은, 주사만 하면, 쌀이든 감자든, 소든 채지든 무엇이든 커지는고로, 식량난(食糧難)은 당장 없어집니다. 적은 식물(食物)이라도 크고 많게 볼릴 수 있으니, 먹을 것이 모자란다는 말은, 이 세상에선 들지 못할 것입니다.



② 낮이 되었으니, 이제 점심을 먹어야겠습니다. 우리들은 얼른 가방에서 공기영양기(空氣營養器)를 꺼내서 입에 물었습니다. 이것은 공기 가운데서, 식물도 변할 수 있는 것을 빨아들이는 기계로, 입이 물고 있기만 하면 때가 저절로 불러줍니다. 기계의 종류에 따라 밀크나 빵, 또는 과자나 밥 맛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얼마든지 있는 공기에서 여러 가지 식물을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이 기계 하나만 있으면,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③ 요즘은 석유나 석탄을 다 파서 쓴고로, 자동차나 비행기, 기차 등의 연료(燃料)로는 원자력(原子力)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터 석탄을 때우든지, 세제나 가소린을 쓰지 않아도, 연료용 원자력 알갱이(燃料用原子力粒)가 있습니다. 마치 옛날 성냥갑 가량의 상자 속에, 동그란 환약 같이 만든 것이 12개 들어 있습니다. 환약 동안 쉬지 않고 자동차를 달려도, 알갱이 한 개만 있으면 충분하다 하니, 대량생산을 낳는 비행기라도, 환알갱이만 싣고 가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러한 꿈이 이루어 진다면.

① 병이 난다든지 죽는다는 것은 정말 싫은 일이지요? 때때로 요사이 병자도 죽는 사람도 없읍니다. 젊어지고 싶은 사람은, 젊어지는 약을 먹으면 그만입니다. “아아 벌써 30세가 되었으나! 어디 다시 한 번 어린이가 되어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알갱이 하나를 한살로 쳐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이는 몇살이시죠?” 하고 누가 물어보면, “네 벌써 321세나 되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5학년짜리 소학생인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② 사람이 죽지 않게 되면, 사람이 점점 늘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나중에는 지구 위는 모두 사람전지가 되어, 있을 곳이 없이 될지도 모를 일이지요. 집을 빨리 그러고 많이 만드는 방법으로, 집을 만드는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마치 유리병을 만들 때 같은 틀을 만들고, 그 속에 푸라스칙크라 하는 맑은 물약을 넣어서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 틀 뚜껑을 열면, 훌륭한 집 한채가 벌써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시내 전체를 집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굉장한 큰 집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③ 사람은 죽지 않고, 집은 많이 세워져 있고, 먹을 것은 얼마든지 있고, 자아! 여러 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이제는 지구 위에서만은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급기야 문제가 되어 화성(火星)으로 이민단(移民團)을 보내게 됨 되었습니다. 대형(大型)트럭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 소, 그러고 돼지나 말, 그 밖에 여러 가지 나무와 꽃씨를 싣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전파(電波)를 화성까지 일직선으로 세계 내보내면, 화성행(火星行)트럭은 송신하게 그 선(線)을 따라 출발합니다. 사람들은 화성을 지구와 같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학생! 이러한 세계를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문) 과학질문계 선생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항상 공부하며 느끼는 것은 과학이나 물리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생님, 데시오에서 말하는 천기압에요, 늘 고기압(高氣壓)이니 저기압(低氣壓)이니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매일 들리는데, 기압은 왜 변할까요?(경기 수석교 5년 권오영)

(답) 물론 기압(氣壓)이란 일경하지 않고 항상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기온(氣溫)의 고하(高下), 수증기(水蒸氣)를 품고있는 양(量)의 다소(多少), 토지의 고저(高低), 수륙(水陸)의 분포(分佈) 등으로, 하루 종일, 일년 동안 언제나 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높은 산 위에서 밥을 지으면, 그 밥이 안부르고 설은 것 같이 되는 것은, 기압이 적은 관계로 일찍 끓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압은 토지의 높고 낮은 것으로뿐만 틀리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이것은 기온에 관계되는 것으로, 지구상에선 적도(赤道) 근처가 그 중 기압이 적고, 이 적도에서 위도(緯道) 30도 근방에서 점점 증가(增加)하여, 양극(兩極) 남



극(북극)에 가까워질수록 또다시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한 기압의 하루동안의 변화는 매일 오전 3시부터 점점 높게 올라가, 오후 10시 전후하여 최고(最高)로 됩니다. 이 때부터 또다시 차차 내려오기 시작하여, 오후 2시가 제일 낮고, 그 후 또다시 오르기 시작하여 오후 10시 전후에 두번째 최고(最高度)를 나타내고, 또 내리기 시작하여 오전 2시 때쯤에 이르러 두번째 최저(最低度)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압은, 하루동안에 있어서 변화할 뿐더러, 일년 동안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여름에는 가장 낮고 겨울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일반적 표준을 말할 때 불과하니,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온, 위도의 변화, 토지의 고저, 수륙의 분포 등이, 기압의 변화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는 것만은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기온의 등온표(等溫表)와 같이, 기압에도 같은 기압지점(地點)의

서로서로를 지도상(地圖上)에 선(線)으로써 나타낸 등압선(等壓線)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고 저기압이란 그 수위(關圍)의 거울보다 낮은 것을 말하고, 고기압은 높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근처의 저기압은 대체로 이것을 대풍(颱風), 선풍(旋風) 부저기압(副低氣壓),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대풍의 중심에선, 기압이 750미리가량부터 쉼하면 700미리 이하까지 내려잡니다. 선풍에선 770미리부터 710미리 가량, 부저기압에선 750미리, 혹은 760미리, 또는 이 이상 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압의 구역(區域) 넓이는, 좁을 때엔 직경이 겨우 2,30키로 가량이고, 클 때엔 200키로를 넘을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압의 변화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온도, 습도(濕度)의 영향으로 생기며, 고기압이 생기면 날이 맑게 개어지고, 저기압으로 되면 바람이나 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압은 기상관측(氣象觀測)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므로, 세계 각지에는 기상대(氣象台)가 설치되어, 천기를 관측하여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학계)



자외선과 적외선

태양의 광선(光線)을 나누면 보통 일곱 가지 빛깔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광선만으로, 이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광선이 있는 것입니다

다. 위에 말한 일곱 가지 빛을 주리듬을 통하여 보면, 빨간빛, 주홍빛, 노란빛, 초록빛, 하늘빛, 남빛, 보라빛, 이와 같은 차례로 되는 것인데, 보라빛 바깥쪽에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광선이 하나 있으니 이것을 자외선이라 부르고, 빨간빛 바깥쪽에 있는 것을 적외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자외선로법(療法)이라는 것이 있는 것과 같

이, 여러 가지로 사람에게 의학상(醫學上)유익한 작용(作用)이 있기 때문에, 화학선(化學線)이라고도 합니다. 적외선은 피부에 닿아 따뜻한 느낌을 주는 광선으로, 적외선사진 등이 있는 것과 같이, 아주 강한 침투력(浸透力)을 가지고 있어, 언거나 얼은 구름을 통하여 저 멀리 있는 곳까지라도 똑똑하게 사정으로써

동요 맛보기

프랑스의 어린이

7 박영종

이 말에는 하늘 벚꽃 한 치
가져왔지. 여머 분을 대워서 세
계를 판바퀴 돌리는 생각입니다.
피에는 빨간 동요의 거품을 달고
하얀 꽃을 높이 올렸지.....

내 귀는 조개껍질
바닷물 소리만 그리워 한다.
(장•쿠르요)

초록 물결이 하얗게 부서지며
밀려오는 모험 바다...그 관관한
물결 소리는 모험을 멀리 떠난
아기의 보얀 깃속에 잠겨서 떠
나지 않습니다.

그러고보니, 정말 우리 귀도
조개껍질을 달았읍니다. 오오라,
그래서 누구나 바다에만 가고 싶
은가보지.

불 난 것은
팔짝 펼친 공작의 꼬리 위에
피어난 찬송이 장미꽃.
(마스•자콥)

불이 났읍니다. 불꽃이란, 밤
에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보다 햇볕이 켜졌을 때 낮에 풀을
말릴듯 타오르는 불꽃은 하늘까
지 밝은 보석기쁨을 보는 듯 황
홀하지. 그러나 이 노래에서는 그
큰 불은 아년상 설읍니다. 먼
거리에서 불이 나서, 꽃불이 장미
꽃처럼 앞서 지붕너머로 보이는
것입니다. 불꽃이 솟아 오르기

때문에 오롯이 하늘에 어러, 겁
은 밤하늘에 그곳에만 말이 떠오
르듯이, 반원(半圓)으로 휘합너
다. 마치 공작새가 그 아름다운
꼬리를 부챗살 퍼붓, 활짝 펼치
는 것 같이.

그네를 뛰어라,
하늘 높이 올라라,
이보다 재밌는 일 또 있으랴,
아득히 멀리 뛰어 오르면,
큰길도 모두다, 집도 모두다,
흔들흔들 몸짓하누나.

들 위에서 아득히,
뛰어 오른다, 날아 오른다.
보이네 호수도 숲도 모두다,
전과는 온통 달라보네.
팔끝이 오르네 하늘 끝까지,
하늘에 닿은 듯 이내 내려진다.
깊어 내려올땐 조마조마 무
섭다.

나무들이 나란히 허리 굽혀
절하네.
다시 공중 높이 뛰어오르면,
하늘도 곧장 가까워온다.
이내 내려올땐 조마조마 무섭
다.
나무앞세 위에서 하늘은 더 푸
르네.

(리히알트•베켈)

넓은 들, 푸른 숲, 나뭇가지에
두 가닥 그넛줄을 달아두고 아기

는 그네뛰기를 하지. 그냥 땅 위
에서는 보지못하는 다른 세계가
도 보이는지 모르지. 사기가 그
넛줄 잡고 뛰어오를 때마다 나뭇
잎 세에서 주른 물결처럼 활랑이
는 하늘과 비실비실 흔들리는 큰
길과 집들...동화에 나오는 "이상
한 나라"의 세계같지. 여머 분만
이 꿈 꿀 수 있는 이런 "이상한
나라"는 그네만 켜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높은 나무에 기어
오를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 영
국의 노래에도,

저기 섰는 뱀나무 위에 높이,
누가 오르랴, 조그만 나 아
니면.

두 팔로 나무를 꼭 껴안고
머나 먼 만세상 내어다 보네.

꽃으로 꾸며진 이웃집의
뜰이 보이네, 바로 눈 앞에.
생전 두고 보지 못한
재미스러운 곳 모두 보이네.

술술 흐르는 푸른 강물은
하늘이 어러서 맑고 깊고요.

먼저일며 구비구비 벌은길에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보이네.
더 높은 나무가 있기만하면
더 멀리 더멀리 내다보련만
.....

저의 잘길 다 간 넓은 강물이
백 떠운 바다로 모여 드는 곳.

신선사는 나라로 집어드는
길이 좌우로 나누인 곳이며,
아이들이 다섯집에 밥을 먹고
장난감이 모조리 살아 노는
곳.

(스티븐슨)

어머 분“작고와 콩나무”의이야
기를 아십니까?콩나뭇가지들 타
고 하늘에 올라가서 금달걀을 날
출알람을 흥겨오는 소년의 이야기
완말 하늘까지 자랄 수 있는 나무
가 있다면 어머 분도 지 푸른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지 않겠음니까.
그런 아름다운 꿈은 얼굴이 노오
랴고 눈알이 까맣 우리 동무들이
나, 살결이 새까맣고 잇발만 하
얀 아프리카의 니그로의 아기를
이나, 그렇지 않으면 살결이 희
고 눈알이 파아란 서양아이들이
나 매일반이겨.

이런 꿈이란 아기만이 거저는
그 중 아름답고 귀한 마음의 향
기입니다.

옛 들 식
술에 가자.

뱃, 다섯, 여섯,
뱃열매 따자.

일곱, 여덟, 아홉
새 광주리에 담자.

열, 열에 하나, 열에 둘
소북소북 담자.

(셈 • 프랑쓰동요)

이런 노래를 읽어보면, 여러
분도 이내 프랑쓰 아이들과 동무
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아가야 소릇이 뱃님이 졌다.
우리집 담뱃에 뱃님이 졌다.
달님이 떠오르면 작한 아기는
보채랴고 곶이 잠잘 잔대요.

아가야 양떼들 돌아오네.
초집으로 울며 돌아오네.
파랑눈 포옥잡고 작한 아기는

언제나 곶이 잠잘 잔대요.

아가야 작한 아기 꾸는 꿈은
장 거슴에 피어난 각씨풀꽃.
가지 속에 지저귀는 귀여운 새
꿈을 꾸며 곶이 잠 잘잔대요.

아가야 편안히 잠잘 자거라.
무서운 꿈이 와서 덤빌때는
아기를 지키시는 하느님을
가만히 생각하며 잠잘 자거
라.

(저녁 • 프랑쓰동요)

프랑쓰의 어머니들이, 눈이 파
아란 아기들을 재우시는 노래입니
다. 마치 여러 분의 머리 밑에서
부르시는 어머니의 자장가와 조
금도 다름없습니다. 그냥 인자
하실 마음이 물 고이듯한 서늘
한 어머니의 눈,그 눈이 여러 분
가 가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그럼
프랑쓰 아이들은 제 어머니들을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이름 가운데 그중 좋은 이름,
그 이름은 어머니의 이름입
니다.

마음 가운데 그중 작한 마음
그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입
니다.

눈매 가운데 그중 예쁜 눈매
는,
어머니가 아기를 건너보시는
눈매.

아무리 좋은 이름이 있대우,
그처럼은 부드럽게 들려지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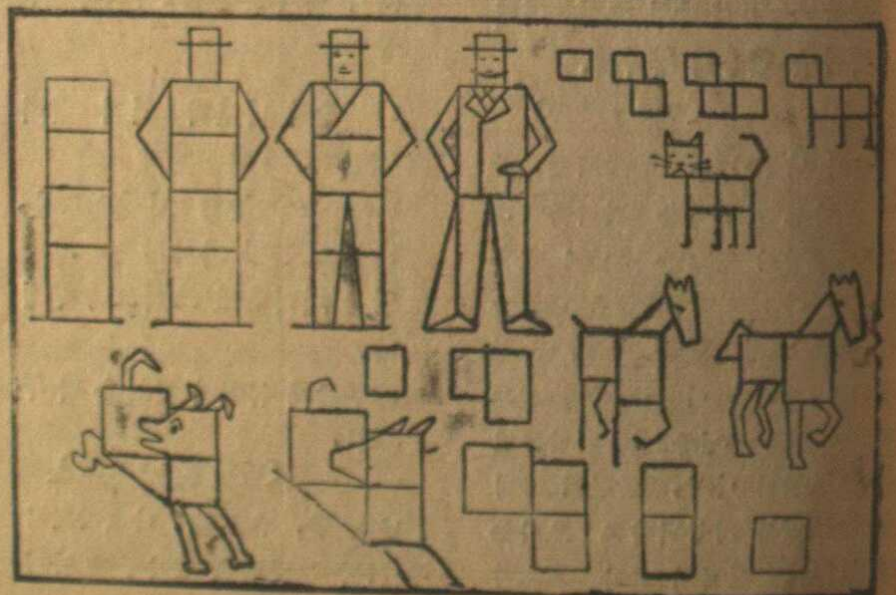
아무리 작한 마음이 있대우
그처럼은 어질게 쓰일 수 없
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눈매가 있
대우,
빛과 열과, 밝음과,
아름다움이 찬란찬란 고인
어머니의 눈매가 제일이여

★ 비모글의 이상한 그림 ★

동무를 아래 그림을 보세요. 이상하게도
모두 비모글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프랑쓰의 어느 화가가 생각하면
것으로, 여러분 보시기에도 아주 간단하고 특
특하게 그리고 순서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면 아무리 그림을 잘 못그리는 사람일

자리도 쉬워서 당경 그릴수 있을 것 같지 않
습니까? 동무를 꼭한번 해보세요. 여기
는 그림(사람, 말, 고양이 개) 이외의 아
른물건을 잘 생각하셔서 이것따같은 명
법으로 그려보십시오.



(어미나 • 드 • 라 • 그라스리)

팔로로 프랑스 노래 한 편만더.

-비비새가 둥지를 짰대요.

-참말?

참말?

참말이거던 보여라.

-비비새가 둥지를 짰대요.

-비비새가 머른가지를

물고 갔어요.

-참말 보았니?

-그리고 썸가에 가서

비비새는 물을 먹음어 갔어

요.

-참말 보았니?

-비비새가 둥지를 짰대요.

-참말?

참말?

참말 네 눈으로 보았니?

-비비새가 둥지를 감췄어요.

나룻가지 속에 감추었어요.

앉아서 치안 보면 뵈잖지.

나무잎새 그늘에,

보고 싶거던 앉아보지.

비비새가 기다린다.

조용히 앉아서 알 까가물

기다린다.

알새가 일어났다.

살며시 일어났다.

-비비새가 둥지를 짰다.

-참말?

참말?

참말 네 눈으로 보았니?

(비비새 둥지 속에

아기 비비새 나왔네)

(비비새 • 아 • 사빠느)

비비새가 알을 까려고, 나룻가
지 속에 둥지를 지었습니다. 한
아기가 보고

“애, 비비새 둥지 난 봤다.”

하며 다른 아이에게는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영여 짐승같은
동무들이 흠어버릴까 염려가 모
어서 그런게지요. 그러다 하루
아침에 보니, 그 둥지 속에 아
기비비새가 노란 주둥이를 쭉 뱉
미는 것입니다. 여러 분의 눈을
늘이와 생각과 얼마나 탐았습니
까. —계속—



★거리에서 얻은 이야기★

“참된 아버지”

서울 경동 중학 6년
나 등 호

부비대고 메밀고 해서 겨우
한 전차 안은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뒤에서 자꾸 자꾸
밀어대는 바람에, 꼼짝 할 수
없이 돼버린다. 어떤 시인이 만
원전차에서와 같이 조선사람이
뭉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
느냐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렇
게 숨막히게 강제로의 문침은,
오히려 팍쇼의 단결같은 것이
이럴까? 이렇게 맘을 졸리느
니 마음대로 휘일 휘일 한걸을
걸어갈걸.....후회가 더욱 낫
다.

전차는 그대로 제 갈길을 달
리고 있었다. 환정기장을 지낸
뒤 부싷코 고개를 들었을 때,
바로 내 옆에 책 서너권 싹 것
을 쳐들고 있는 중년된 분이 하
나 있다. 호기심이 나서 자세
히 들여다. 봤다. “소년 역사
얘기” “작문 독본” “이 순신장
군” 들이다. 아들에게 사다주는
것임에 틀림아울 것이다. 나는
감동했다. 그러고 다시 한번 그
분의 얼굴을 쳐다 보았다. 아이
들에게 책을 사다주는 아버지.
중고품 털모자 쓴 것을 보든지
옷차림새로 보아 그리 잘 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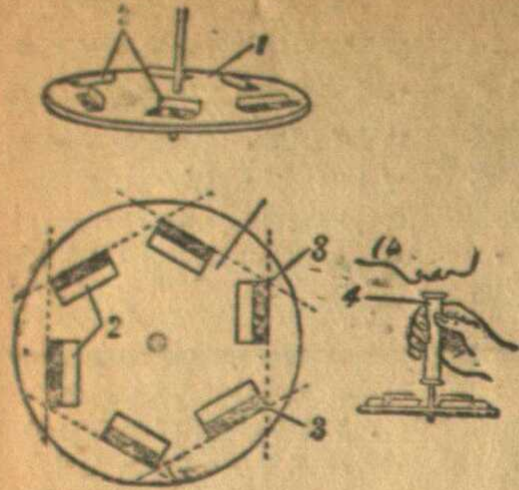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책을 아
버지가 사다준다! 그 얼마나
명랑하고 기쁜 일인가? 여태
까지, 그리고 혈계 우리의 가
정이나 사회가, 가장 (家長)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적인 제도
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들 조
선의 어린이들은 정 (情) 과
사랑에 굶주렸던가? 그리고 우
리네 아버지들은 얼마만치나 그
의 지식들의 교육을 위해 힘을
썼나? 욕하고 때리고 술주정
하고 돈이나 몇푼 주는 아버지
는 많되, 말동무가 되어주고 책
을 사다주고 하는 아버지가 그
얼마나 되는지?

이제부터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가정이어야 한다. 거기
서 사랑과 정과 화 (和) 가 우
러나올 것이다.

밤이나 싸우고 돈이나 주어서
학교에 보내는 것이 교육이 아
닐 것이다. 진정으로 어디까지
나 그 동무가 되어주고, 앞걸
을 헤아려주는 것이 교육일 것
이다.

욕지거리나 주먹다짐이나 돈
몇푼으로써 가정의 화무를 꾀
할 수는 없다. 아이들에게 책
을 사다주는 아버지! 나는 그
광대뼈가 나온 얼굴을 다시한
번 쳐다봤다.

복태기 치는 전차 안에서 나
는 정말로 눈시울이 뜨거워졌
다. 조선 가정의 아들모씨 ...
그리고 모든 조선의 아버지가
이렇게 되시기를 마음속 깊이
빌었다.



★재미있는 공작실부

입으로 부는 기묘한 팬이

실을 감았다 푸르는 힘으로써 팬이를 돌리는 것은 보통이지만, 그러나 여기 입으로 불어서 돌리는 팬이가 있다면 더욱 재미있고 신기할 것입니다.

재료=이 부는 팬이는 두꺼운 종이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재료는 두꺼운 종이와 가사 단판 몇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만드는 법=먼저 두꺼운 종이 위에 콤파스트 적당한 크기의 동그라미 (1)를 그립니다. 다음엔 그림에 점선 (點線……)으로 나타낸 것과 같은 정육모꼴(正六角形)을 그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둥근 원판(圓板) 위에 중심(中心)을 같이 한 먼저 원판보다 좀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원주(圓周)를, 이 선을 그릴 때의 콤파스 넓이로 조지면 쉽게 여섯개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육모꼴을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육모꼴의 변(邊=고과3...그림)을, 물로 조르고 하나 컬러클릭 그림과 같이 구멍(구멍)의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 줄이는 때이비리지 말 것)

그리고 이것을 접어서 세계 해두면 그림 (2)가 되는 것으로, 이것이 팬이의 바람을 받는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날개를 잘 접었으면, 끝으로 막대기를 동그라미 가운데다 박고, 다시 두꺼운 종이를 동글게 말아서 통(筒=4)을 만들면 다 된 것입니다.

다.
노는법=통 (4) 속에다 팬이 막대기를 끼우고, 통 위를 입에 대고 힘차게 불어 보십시오. 그러면 통 밑에서 나온 힘찬 입김이 각각 여섯개 날개에 붙어 힘차게 팬이를 돌립니다. 팬이 죽은 자기 마음대로 색깔을 하든 그림을 그리는 연구하십시오. 재미있는 팬이가 될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떤 시골 사람이 경찰서로 달려 오며 “큰 큰일 났습니다 저집에서 막 싸움을 하고 있어요. 코에서 피가 쏟아지고”하며 서두르는 바람에 순경이 부리나케 가보니 권투시합을 하더라고요. (서울 방산교 5의 1권 영진)

부 강 아 지

아주 예쁜 강아지를 가지고 있는 이쁜이를 보고
차들이...참 예쁘게도 생겼다. 어찌면 저렇게 잘생겼을까?
이쁜이...아이 부끄러워 필 내가...필 그렇게...
차들이...애 누가 너말야. 강아지가 예쁘단 말이지.
이쁜이...??? (서울 중로 5가 125의 2 고기덕)

자 심 부 름

아버지...피들이 이 돈으로 못 사오나라.
피들이...네 못 사오겠습니



다.
피들이는 돈을 받아가지고, 피자 사고 사랑 사먹곤 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못 사왔나? 피들이...네 못 사왔습니다. 아버지...아니 그게 무슨 말이나? 피들이...못 사오라고...사오지 말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버지...??? (서울 청계교 3의 1 임 용직)

자 눈

공부 시간에 하도 생모들이 떠드니까, 선생님...머들지 말고 눈을 감아라.
귀둥이가 눈은 막둥이가 보고,
막둥이...선생님, 귀둥이가 눈땀예요.
선생님...니도 눈을 땀지? 안땀으면 귀둥이 눈은 것을 어떻게 알아.
막둥이...??? (서울 청계교 5의 2 임 단직)

착각(錯覺)이란 무엇? *

이느 할 물건이 다른 물건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에 있어서의 물건 모양 그대로 보이지 않고, 전혀 물리개, 또는 작든지 크게 느껴지는 현상(現象)을 착각이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시각(視覺=눈)과 청각(聽覺=귀)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맛,



냄새, 또는 피부 등의 감각(感覺)에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 환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① 이 그림에서 누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은 맨앞에 있는 순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순경이 제일 작고 울렁이를 든 소녀가 제일 큼니다.

② 줄이 모두 똑같이 보이지



합니까? 그러나 이것 역시 똑같은 평행선(平行線)입니다.

③ 이 그림을 손에 들고 좌우로 돌려 보십시오. 그리고 똑똑히 보세요. 그림이 안그러져 있는 등그라미 셋은 왼쪽으로 팔팔 평행선을 둘 것이고, 그림 그



려진 등그라미는 오른쪽으로 쭈뼛 뻗어 갈 것입니다.

* 청취박사 * * 청취박사 *

(문) 청취박사 정말로 안녕하십니까? 나는 편지로 여러번 위문을 했는데, 4월지를 보고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제부터 너무 놀라게 마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쉬신 빌로, 어떤 아이가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중간쯤 가니까 앞에 사자 한마리가 으르렁대고 잡아먹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얼른 아이는 되돌아 걸어가려 하고 앞을 보니, 아니 이걸 어찌겠어요. 범이 눈을 번쩍이며 앞발을 들고 당장이라도 덤빌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요? (서울 매동교 5년 안성균)

(답) 하하! 그동안 쉬었다고 누굴 댈 보는건가? 정신차리게, 웬 대낮에 꿈을 꾸고 있어. 어서 어서 꿈을 깨게. (청취박사)



(문) 안녕하십니까? 용하다는 소문을 듣기는 들었으나? 어제 의심스러운데.....자아 그만큼 하고, 아니 벌써 떠세요? 보이지 않으나 사람에게 없어진 안될 것이 무엇인지? (서울 방산교 5의1 권영진)

(답) 비드장머리 없이 웬 잔 소리가 많은가? 공기야 공기 (空氣)(청취박사)

(문) 할아버지, 제가 지금

공손히 문안드립니다. 조용히 대답해 주세요. 나는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나고 맛도 없으며,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세계 일주를 할 수도 있고, 내가 화가 나서 요령을 하면 사람들은 내 요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 일까요? 피물은 물론 아닙니다. (서울 청운교 3의3 조요성)

(답) 누가 자바처럼 요령한 했나? 조용히 대답을 하라게. 그럼 조용히, 화낼까 두서우이. 바람, 바람 알지? (청취박사)

(문) 안녕하십니까? 나이 어리다고 깔보지 마십시오. 처음 이뻐서 그런지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다윗이 들어가는데 열이 잡아당기는 것은? (서울 효제교 3의8 고기종)

(답) 왜이리 서두루나. 문제가 심겨워도 나이 어린 뜻이라 생각하고. 비전을 신나? 양말을 신나? 빨리 신고 늦지 않게 학교 가게. (청취박사)

(문) 밤낮하는 인사라 언제 인사하기 좋스럽군요. 더 멋진 그럴듯한 인사는 없는지? 청취 대답만 마시고 인사법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림 술은 술인데 못먹는 술은 무엇일까요? (서울 남산교 4의4 김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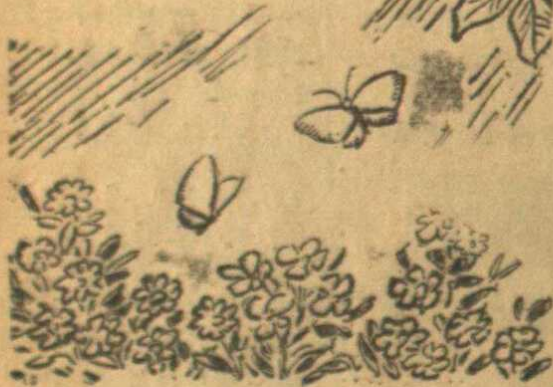
(답) 인사하는 사람이 생각할 것이지. 청취박사라 무엇이든 알긴 하지만 안가르쳐 주겠네. 20세기 과학문명 시대에 웬 요술인지 마술인지 꺼집어 내나. (청취박사)

조화생각

동요 나 비

서울 덕수 국민 학교 2와5
조 남 금

나비 나비 노랑나비
어디로 가나?
꽃 속에서 달터달
꿀을 빨고서,
비가 오면 고운 날개
어떻질까봐,
수풀 속 나뭇잎을
찾아가지.



동요 봄

경안 병천 국민 학교 6년
박 한 규

부드러운 봄바람
불어 오며는
모래밭에 멧새가
파래칩니다.]

참새들은 알집 찾아
지저귀고
잔달래 꽃봉오리
다 폼습니다.]



동요 외갓집

서울 창신 국민 학교 5년
김 영 일

외갓집은 개울 건너,
고개 넘어, 들길을 갑니다.]

고개 넘어 들길가에
푸른샘물,
샘물 맛은 언제나
잡니다.

☆동요를 뽑고나서☆

박 영 중

*나비는 참 재미납니다. 더욱 세세한,
비가오면 고운 날개
어떻질까봐,
이 말이 이 동요의 가장 결된 곳입니다.

금빛꽃기루가 소복히 덮인 그 가냘고 넓은 나
비겨 날개에, 굵은 뱃뼉들이 푹 떨어져 커
마란 어룡을 지워주었다 합니다. 그때의 바
벼의 슬픈 얼굴을.....어리 젊은 상상 할 수
있습니까?

*봄'은 참 농촌다운 봄의 정경이랄 그
러졌습니까. 모래밭에 멧새(봄풀어름. 양)

세고 나고, 푸리는 하얗고 연한 것을 잡아 떠
오면 달콤한 꿀이지요)이 파래지는 봄. 일방
을 자라를 찾아 수선을 덮여 지저귀는 새
의 흥성한 기분.....그런 봄의 조망하리라도
언금이 흥성흥성한 기분이 잘 나타났습니까.
*대박'은 아침 기분이 잘 어울리기도 좋거
니와, 그보다도 자기 생각을 무시하고 영
게 그러어 놓는 것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중요

새 벽

서울 대동 국민 학교 5년
원성균

꼬꼬대 아침닭이
술어웁니다.

하얀 새벽별이
쓰러집니다.

굴뚝에서 아침연기
여기저기 뭉실뭉실
지붕 위에 까치가
작작웁니다.]



중요

별 하나

서울 경동 중학교
나동호

맑은 밤하늘에
별이 하나

푸른 달빛에
까아악 울고

누구의 눈동자이기에
저렇게 짝짝어나?

푸른 밤하늘에
별이 하나

혼자 바안작

★ 세계 명작 소년 소설 ★

十五少年 (후편)

쥘스 베르네 지음 · 이 경일 번역



열다섯 소년들이
어떻게 되었
을까? 여러 분을
괴 궁금하시지요.
이 섬에 도착한
악한 일곱 명도
살아 있습니다.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아슬아슬
하고, 너무나 재
미가 있고……

(十五少年후편의 한 장면)

책값 170원 ★ 건민문화사 발행

- ★ 지금 책사마다 팔고 있습니다.
- ★ 전전은 다 팔려서 재판했습니다.
- ★ 전전 책값은 200원입니다.

★ 아 협 신 간 ★

사랑의 학교

학교 건물에 있고 학생이 있고 선생이 있으면 완전한 학교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학교에는 사랑이 넘쳐도록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미치스 지음 · 이 영철 번역
46판 230페이지 · 책값 300원
말아문장각 서울중앙
과는네 문 장 각 로2가

대목 밑 글꼴에 빠치기를 노래하므로, 설명에
한 빠치기 쉬운 노래를 인상적(印象的)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건민은 두번째 되었습니다.

원본은 풍요(事)가 무엇인지 제법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
를 잘 알았을 듯 하기에 씁니다. 이 노래에
는 외장(外裝)이 가늘게 붙어있는 자기의 그

담과 즐거운 생각을 골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호의 여러분 작문가운데, "올해마"
며, "공이배" 며 "노랑나비" 등의 노래가. 무엇
이재미있으나구 좋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분
은 노래만 볼 줄 알지, 여러 분 의 마음의
밖은 못보셨나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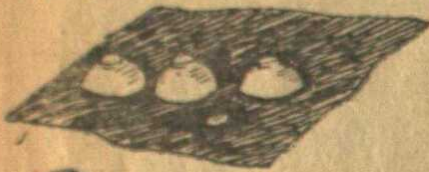
그 노래들은 그이온 아이를 직접이야 가

르지는 선생님이사나 아버지께서, 그 노래
를 쓰지될 마음을 초급한 일로서 키워주시면,
공유한 사(事)가 될 아름다운 씁이, 그
예말로 함께 눈으로 있습니다.

(삼원스프링에)

★모름 찾기★

결정보자기 (혹은 결정세공이) 를 갈아놓은 책상 위에, 동전 한 개와 사기공기 세개를 올려놓고 "여러 동무들 중에서 누구든지 좋으니까, 내가 눈을 감고서 뒤를 보고 있을테이니, 그동안에 동전을 어떤 공기든지 그 속에다 감추어 두면, 내가 그것을 알아 맞추겠다." 하면 여러 동무들 중에서 누구 한사람이 어떤 공기 속에 있는지 감추겠지요. 그러나 아무



리 모르게 한다하더라도, 신기하게 즉시 동전있는 곳을 알아 맞추니까 이상하지요?

“하는방법”

요술하는 때에 머리카락을 꼬고 의 응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되 있습니다. 이 요술도 그것의 한 가지인데, 그림을 보시는바와 같이, 동전에다 적당한 길이의 머리카락 (1) 을 풀칠하여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동무들은 그런줄 모르고, 알아맞추는 사람은 이것을 잘 알고 있을테니까, 공기의 바깥으로 나온 머리카락을 보고 맞추낼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결정보자기를 갈아놓은 것은, 머리카락이 얼른 보이게 하느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술술하게 가르는, 끊었을 때 생각과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는 옛말이 있듯이, 어려워 물은 큰 뜻이 부풀어 위

소학생 구락부

▲최척박사 할아버지 이하 여러 선생님! 봄이 한창입니다. 지의산 (智異山) 밑 나의 고향에도 봄은 한창입니다. 비록 산 위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 있으나, 우리 집 들 앞에 있는 복사꽃도 피고 산수유꽃도 피었습니다. 서울은 요새 어떠하신지요. 5월치 "소학생"은 언제나 나오는지 금중해 졌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만 쓰겠습니다. (전북 남원군 운봉 국민교 3년 박을용).

▲기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소학생"은 점점 재밌어 갑니다. "하얀쪽배"와 "피노치오"는 슬프고도 재미있는 글입니다. 나는 사는 날로 다 읽었습니다. "소년잡국지"가 중지된 것이 나는 퍼 유감입니다. 등요를 지어 보내오니, 박영중 선생님께 전하여 주십시오. 5월치 기다리나이다. 안녕히 (서울 종로 5가 125의 2 그 기덕)

▲소학생 구락부 동무들 처음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나도 같은 대안 발전도 하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내남작할것 없이 스스로 싸워 나아갈 생각보다, 요령을 바리고 독배에 걸려가듯, 공부도 일도 하는 사람이 태반인 것 같은 요즈음 세상에. 20년대 맞이하는 뜻 깊은, "어린이날"을 당하여, 동무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겠는 지? 어른이나 어린이나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지금을 그리고 앞날을 생각해 봐야겠다.

▲수많은 동무들 두고 기운다, 하물에 여물을 안르는 분이 많다. 봉투 결어만 하고, 폭탄 또는 이물을 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 작품에도 잊지 말고 쓰시기 바란다. (반)

은 구락부원으로 사귀어 주십시오. 그리고 편집부 기자 선생님들께 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하하 왜 웃으세요? 저는 문에 책을 피오니까 그렇죠 뭐..... 나는 소학생이 아니고 중학생입니다. 어떻게 이 "소학생"을 알게 되었느냐 하면, 정말 소학생인 나의 어린 동생이 사은 "소학생" 잡지를 처음 62호부터 읽고, 리로 재밌고 유익하여, 나도 애독자가 됐습니다. 여기 작품 보내오너 잘 지도해 주십시오. (경북 김천 중학교 2년 박준범)

▲"소학생"을 편집하시느라 눈도 뜰새조차 없으실 기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 글학정이 있는데 들어주실는지? "이유가 아쉽 상타기 문제"의 답을 맞추고, 재비를 뽑아서 떨어진 사람의 이름도, 상은 없더라도 바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몸조심하시고 안녕히. (서울 도계교 5의 2 이은환)

△어떻게 그 많은 동무들 이름을 일일이 신겼습니까? (기자)

422年 5月 1日 發行
소 학생 · 값 100 원
5월치 ★ 제 67호
 發行人 尹石重
 發行人 尹石重
 發行所 兒童館
 422年 3月 30日 創刊 第249號
 서울 總發 216-82 永登館
 電話 (電) 397-52-3982-3
總販賣 乙酉文化社
 서울 總路 2街82
 振替 서울 3t543番
 電話 (電) 3492
 30187
 3970
 30328

서울신문社 印刷局
 422年 9月 31日 號外 第14號

어린이날 만화

동키와 거북이의 경쟁
영 의환·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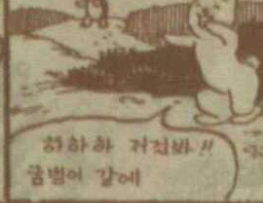
우리 집안 나무까지 갔다
어디까지 모기 쫓아 주라 용!



그런데도 내가 뭘지만
요번에는 내가 이겨야지



하하하 거지바! / 금병이 같이



아이쿠! / 송가배 죽었어 / 모기는 어디지 / 못하겠어



하느님이 / 보우 천사 우리 / 나라 / 만세

순서 따라 / 내려 가신 / 다 침인 / 차려!

아유!



아유! / 모기 / 는 벌써 저멀 / 리 멀리 갔어

동키 풀만 수가 / 있어. 비리와 다 / 리를 무척 많이서

대충 대충 / 굴러라

이러! / 저지 뭐야



아유! / 어지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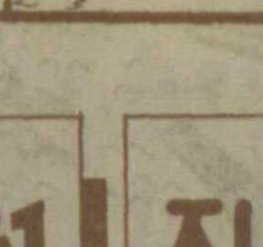


어디 / 갔나

동키 풀만 수가 / 있어. 비리와 다 / 리를 무척 많이서

하하 거북병이 / 봐! 내가 이겼 / 다 이겼어

애허 요번도 / 드 내가 / 이겼어



이렇게 / 쪽-1 목 / 을 빼단 / 말야



새동무

어린이

진달래

어린이나라

어린이신문

그림백과사전 ⑩

벌목 (伐木) 설명 19 페이지



22 fo

★ 만화 ★ 아담손 할아버지

